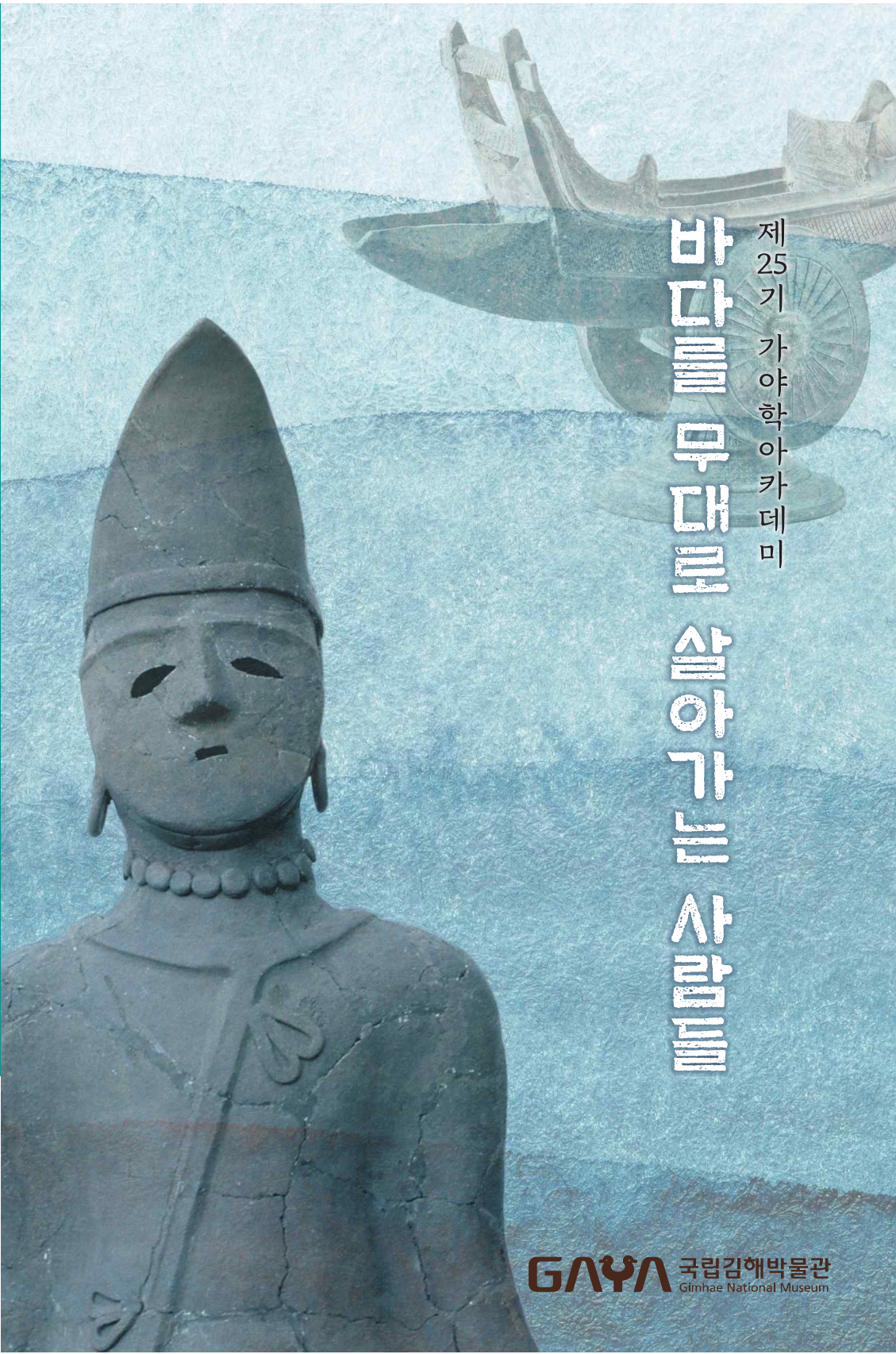


GAYN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저
2
가
—
가
0
한
0
카
다
마
—
2
0
2
3

1499

5
가
2023
G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 25기
가야학아카데미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교 | 육 | 개 | 요

- 운영일시 : 2023. 5. 17. - 6. 21. 매주 수, 14:00~16:00(2시간)
 - 장 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대 상 : 누구나 100명
 - 내 용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수료기준 : 6회 강좌 중 4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강 | 의 | 일 | 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및 소속
개강 및 인사말			
1	5.17. (수)	동남아시아의 해양 교역	박장식 동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2	5.24. (수)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남종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3	5.31. (수)	중국 남조와 서역의 대외교류	조윤재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4	6.7. (수)	이슬람 제국 형성의 배경과 해상 진출	정규영 조선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아랍어전공 교수
5	6.14. (수)	동해를 둘러싼 선사~고대인의 문화교류	김재운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6	6.21. (수)	일본열도에 정착한 가야인	조성원 전 부경대학교
		종강	

※ 강사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동남아시아의 해양 교역	7
2.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19
3. 중국 남조와 서역의 대외교류	43
4. 이슬람 제국 형성의 배경과 해상 진출	87
5. 동해를 둘러싼 선사~고대인의 문화교류	99
6. 일본열도에 정착한 가야인	125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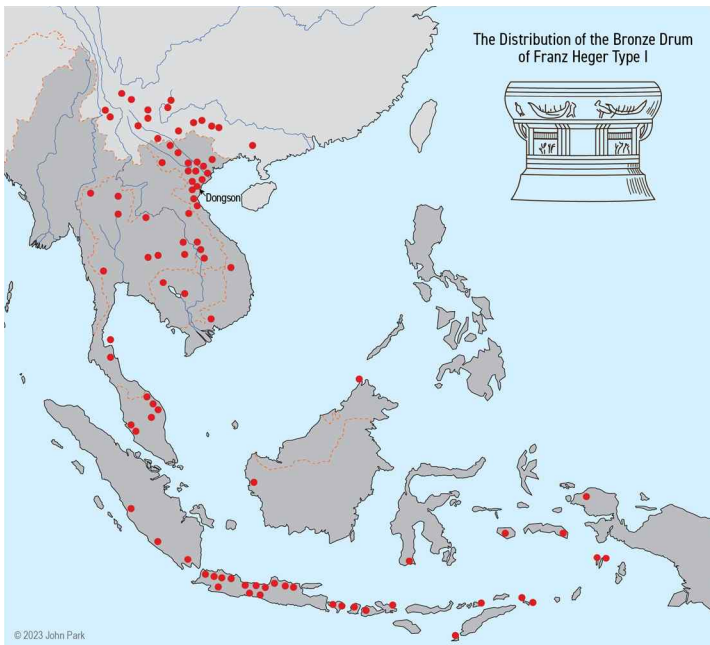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의 해양 교역

박장식

동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동남아시아는 예로부터 동서 해양 교통의 요충지로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 아랍, 서구 등 문명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crossroad)을 담당해왔지만, 때론 미개한 지역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동남아를 방문했던 외래인들은 그곳 왕도나 항구도시의 번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에는 동남아를 일컫는 용어도 매우 다양했다. 고대 인도에서는 수완나부미(Suwannabhumi, 황금의 땅), 서기 1~2세기경 지중해에서 인도 코로만델(Coromandel) 해안까지 교역을 위해 찾아왔던 그리스 상인들은 크리세(Chrise, 황금의 섬), 중국에서는 남양(南洋), 전근대 유럽인들은 인도저넘어(Further India), 인도 차이나(Indo-China)로 불렀다.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는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스리랑카 칸디에 설치된 동남아사령부(South East Asia Command)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의 동남아 지역은 상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동남아 내부의 왕래는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프란츠 헤거(Franz Heger)의 청동북(기원전 600년~서기 3세기) 연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체로 동남아의 청동북은 베트남 북부 홍강 델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그것을 중심으로 동선 문화(Dongson Culture)라고 부른다. 그가 분류했던 4가지 유형의 청동북 중에서 가장 시대적으로 먼저 제작되었고 장식이 화려했던 헤거 1형의 분포도를 보면 현대 동남아 지역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림 1] 헤거 분류 제1형의 분포도, 발굴 조사 토대로 작성

서기 1~2세기경 로마 시대의 해외 교역을 주로 담당했던 그리스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통과하여 아라비아해를 거쳐 인도 서부 및 동부의 कोरो만델 해안까지 방문했다는 기록(에류트라해 안내기, Periplus of the Erythraean Sea)이 있다. 이 시기에 중국의 한 나라에서도 지금의 광저우(番禺)를 떠나 베트남, 태국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로 가는 항로가 만들어졌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서는 인도의 최종 목적지로 지금의 칸치푸람(Kanchipuram, 黃支)이 등장하고, 크라지협(Isthmus of Kra)에서 그곳까지는 대략 배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2] 서기 1~2세기경의 인도, 중국, 동남아의 주요 교역 항로

전근대의 동남아 항구도시에는 교역 활동을 벌이고 풍향의 변화에 기다리는 다양한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머물렀다. 국제적인 색채가 농후한 도시를 형성했던 동남아 항구도시의 지배자는 통합을 위하여 세계질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671년 동서 교역의 중계항으로 번창했던 수마트라 남쪽의 스리비자야(Srivijaya, 室利佛逝/尸利佉誓) 왕국의 중심지 팔렘방(Palembang, 실제로는 지금의 태국 반돈만의 차이아(Chaiya) 방문이 새로운 학설로 등장, 스리비자야 왕국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함)을 방문했던 당나라 고승 의정은 그 땅의 지배자가 전심으로 불교를 보호하고 천 명이 넘는 승려가 불교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 이후 도서부에서는 내항하는 무슬림 상인의 증가와 함께 13세기 말부터 이슬람교가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에 번영했던 항구도시였던 말레이반도의 말라카(Malacca)와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Aceh)는 동남아에 있어서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아랍 종교인과 동남아 메카 순례자를 품었던 아체는 ‘메카의 현관’ 또는 ‘메카의 베란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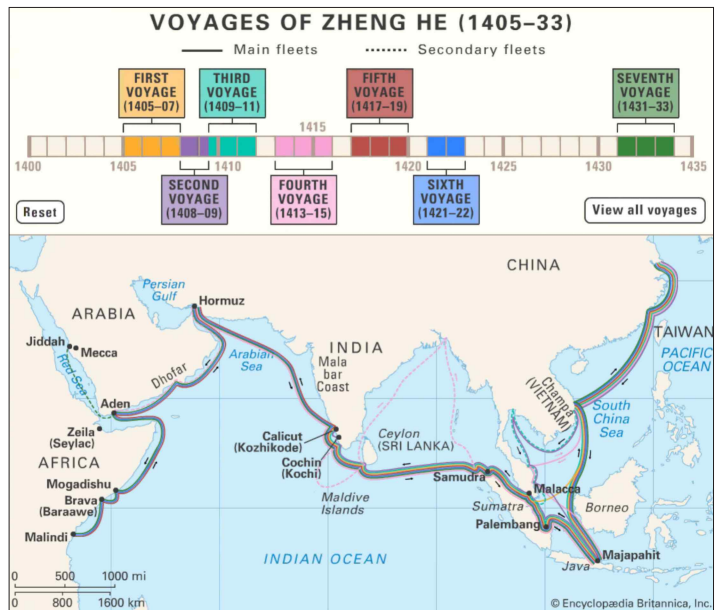
또한, 벵갈만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스리랑카와의 교역이 활발해진 대륙부 동남아의 주요 도시에서는 상좌불교가 14세기 무렵부터 확산하였다. 국제무역항으로 번창했던 태국 아유타야(Ayutthya)나 미얀마 버고(Bago)가 그 중심지가 되었고, 양 도시의 지배자도 열렬한 불교도로 동서 상인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또한, 동남아 항구도시 지배자 중에는 중국에도 진출하여 조공무역을 행하였고, 동남아에 도래한 중국인과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림 3] 근대 이전까지의 동남아의 주요 항구도시

항구도시를 거점으로 건설된 동남아 국가들은 그러한 세계질서와 지역질서, 여기에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동서 해양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귀중한 교역상품을 생산했던 동남아에서는 말라카 해협을 이용하는 항해가 확립되었던 5세기 무렵부터 교역 활동이 활발해졌다. 내륙 지역과 교통이 가능한 주요 하천의 하부 유역이나 말라카 해협 연안에는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는 항구도시가 형성되었다. 오래전 1~7세기에 메콩강 하류에서 번성했던 후난(Funan, 扶南) 왕국의 항구였던 옥에오(Oc Eo), 지금의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링유(Linyu/林邑, 참파(Champa/占城)로도 불림)의 여러 도시 및 말라카 해협에서 7~1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번창했던 스리비자야 왕국의 중심지인 차이아(Chaiya), 팰렘방이 그 대표적이다. 10세기 중엽에는 팰렘방 위쪽에 잠비(Jambi/三佛齊)가 발흥하여 교역의 경쟁이 치열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무렵 북부 베트남인의 남하로 이제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참족의 교역 도시에 대해서는 13세기 중국과의 교역지역과 그 물산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제번지(諸蕃志, 1225년 송의 조여괄(趙汝适)의 저서)를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다. 전근대 이후 그곳에서 중계교역항으로 호이안이 등장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 참파의 교역 활동이 서기 초반부터 있었기 때문이었다.

열거할 수 있다. 동남아의 교역은 17세기 중후반에 걸친 청나라의 천계령(遷界令)이나 1670년대 유럽에 있어 후추 가격의 폭락으로 일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아시아의 정세가 다시 안정을 취하자 18세기에 다시 활발해지면서 팡렘방, 리아우(Riau) 등 항구도시가 번창했다.



[그림 5] 총 7차례에 걸친 정화의 원정

이러한 항구도시에는 유럽이나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상인이 내항하였다. 말라카는 그 전형적인 중계교역항이었다. 1511년에 포르투갈에 점령된 말라카를 방문했던 리스본 출신의 약재상 피레스(Tomé Pires)는 그곳에서 84개의 서로 다른 언

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곳 지배자는 외국 상인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런 항구도시의 배후지는 대체로 열대기후 강우로 형성된 삼림이나 하천 유역의 분지가 펼쳐져 임산물, 쌀, 후추 등 상품작물의 산지였다. 칩향, 백단, 용뇌 등의 향목은 동서 교역에 있어서 귀중한 상품이 되었다. 또한, 후추, 정향(clove, 丁香), 육두구(nutmeg, 肉荳蔻) 등 향신료도 14세기 후반 이후 귀중한 수출품이었다. 코뿔소의 뿔, 상아, 거북껍질 등도 고대로부터 꾸준히 거래되었던 물산이었다. 또한,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는 내륙지역에 금광이 있었고, 말레이반도에는 주석 광산이 있었다. 인구밀도가 낮았던 동남아에 있어서 항구도시가 산지민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항구 지배자는 산지민에게 상품을 집화하여 항구로 운반하게 하였다. 배후지의 주민은 그 대신 해산물을 비롯하여 인도 면제품, 금속제품 등을 손에 넣었다.



[그림 6] 동남아의 대표적인 향신료, 정향 및 육두구. 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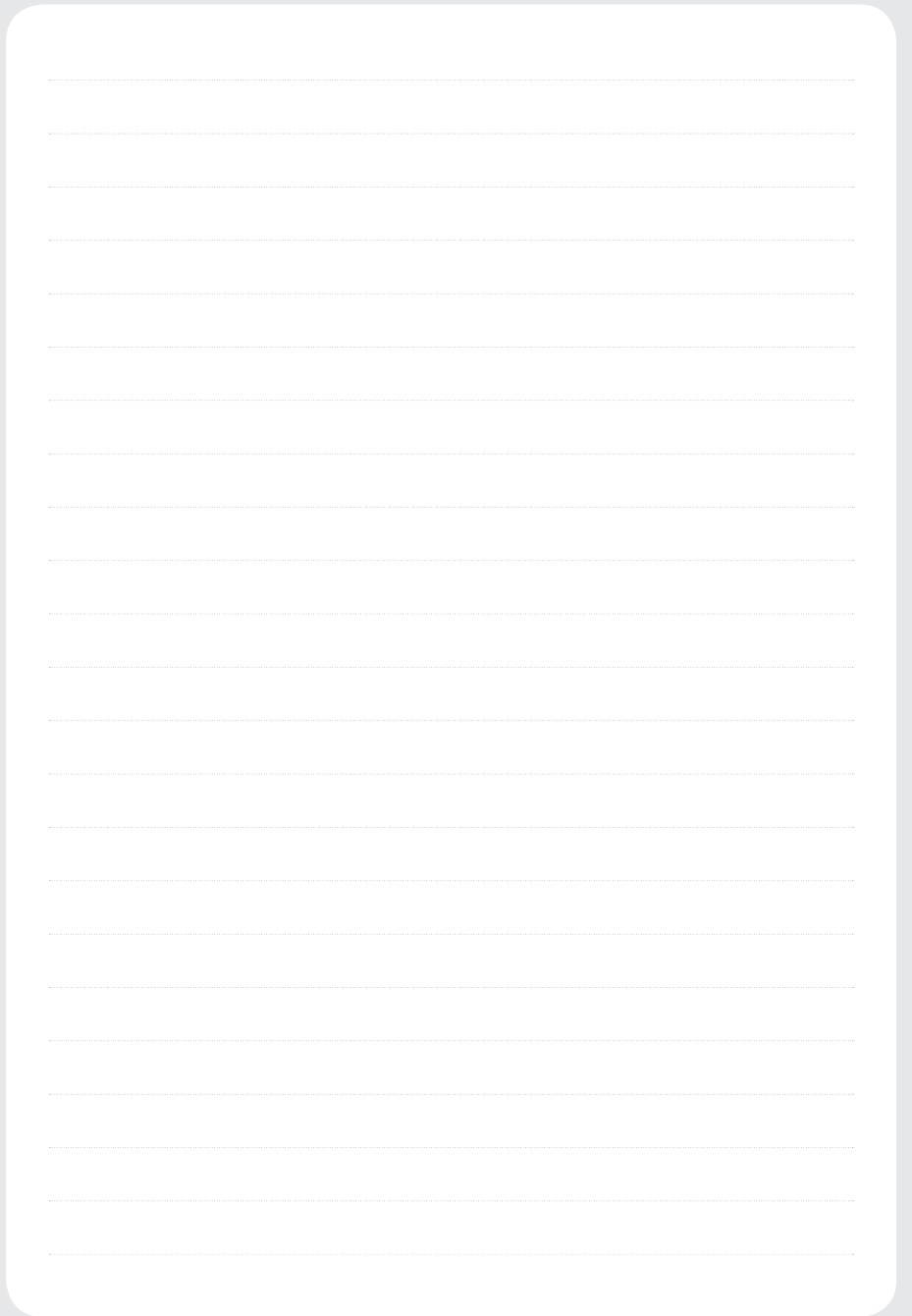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근대 서구 세력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이전의 항구도시는 생산활동에 제후를 맺었던 내륙 배후지의 주민이나 주변 해역에서 어업 또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해상민을 연결하여 대개 왕권을 탄생시켰다. 대체로 거의 모든 항구도시는 왕국의 중심가 되었다. 물론 왕도와 항구도시가 다른 예(옥에오, 호이안)도 있긴 하지만, 항구도시는 왕국의 존립 기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항구도시를 기반으로 성립한 왕국을 한 동남아사 연구자는 ‘항구도시국가’(port-polity)라고 부르며 동남아 역사에서 가장 동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시(港市)의 지배자는 상인이나 종교인 및 전문기술자 등의 외래인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획득한 사치품이나 문화적 위신을 신하에게 재배분하여 자신의 권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인도를 경유하여 중국 진출을 꾀했던 유럽 세력들은 그 길목에 자리한 동남아에서 귀중한 물산들을 접하였다. 그들의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항시의 지배자를 압도하여 서서히 식민지를 구축하였다.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 그룹의 진출이 주류를 이루었던 포르투갈과 달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처음엔 동인도 회사를 통해 진출하였다가 국가적 차원의 지배를 완성하였다. 계몽군주가 활약했던 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남아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 야욕에 넘어갔다. 필리핀은 16세기 초 마젤란 선단의 세부 막판섬 도래 이후 1565년 스페인 필리페 2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가,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의 승자가 되었던 미국에게 양도되었다. 이로써 동남아는 유럽 열강의 착취 식민지 경영에 따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해상 교역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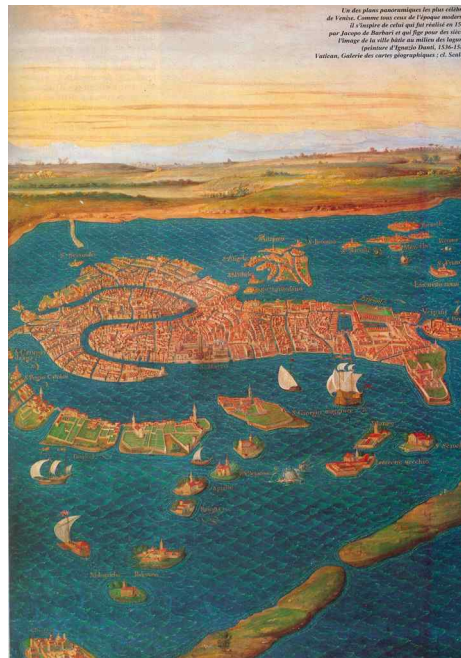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남종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이 강의에서는 초라한 작은 섬에 불과했던 베네치아가 어떻게 중세 말 유럽 최고의 경제 부국으로, 지중해 바다를 주름잡는 해상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베네치아는 약 414 평방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섬으로, 사람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베네치아는 “경작도 파종도 수확도 하지 않는다(non arat, non seminat, non vendemiat)”는 속담처럼 농사지을 땅도 거의 없었다.



[그림 1] 16세기 베네치아 전경

중세 초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이탈리아 북부에서 베네치아로 피난 온 초기 원주민들이 석호에 집을 세우고 살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베네치아가 중세 말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지중해 해상 강자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중세 지중해와 베네치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마주한 또 다른 의문점은 근대 유럽 세계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이다. 특히 근대 세계의 경제 질서인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상업 제도와 경제적 심성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밝히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근대 세계의 탄생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 개척을 선도했던 대서양 연안 국가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근대의 탄생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만든 것은 이탈리아 상업 도시들과 상인들이었다. 특히 베네치아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은 베네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첫 중심지였다고 말한다.

중세 베네치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장하고 신화화하기보다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베네치아의 성공은 중세 후반 지중해의 정치·군사적 판도라는 구조 하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라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대략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이다. 5세기 동안 지중해에서는 패권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패권의 변화가 베네치아의 성공에 유리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1000년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할 것 같다. 변화가 시작되는 1000년경 지중해 제일의 강자는 이슬

람 세계였고,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동로마제국), 그리고 가장 열세에 놓였던 곳이 바로 서유럽 기독교 세계였다.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지중해 바다 또한 사실상 이슬람의 바다였다.

그렇지만 서유럽 기독교 세계는 이전 시기의 침체를 극복하고 11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지중해 교역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서유럽 상인들은 지중해로 다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중해 진출을 선도했던 세력은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었다. 경제 성장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서유럽 기독교 세계는 9세기 서로마 제국의 와해 이후 강력한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왕권이 약한 봉건 왕조들로 분할되어 있었다. 10세기 이후 서유럽에서는 삼백 년 동안 봉건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권력 파편화가 이루어졌고 이렇다 할 강력한 패권 세력이 등장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서유럽 봉건 왕조들은 지중해 바다를 장악할 해군은커녕 자국 상품을 수송할 선박조차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 지중해 교역에서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000년경까지 지중해에서 강자였던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은 이후 전성기의 활력과 힘을 잃어갔다. 11세기 후반 이슬람 세계가 처한 중대한 위기는 분열이었다. 이전까지 이슬람 세계의 맹주였던 아바스 제국은 옛 영광을 상실했고 11세기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셀주크 터키의 침략에 시달렸고, 10세기 초 이집트에 수립된 파티마 왕조(909-1171)는 아바스 제국과 경쟁하고 있었으며, 이

베리아반도의 이슬람 세력은 내부 분열과 기독교 세계의 공격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비잔티움 제국은 11세기 발칸 지역에서 슬라브족의 공격을, 아드리아해에서는 노르만족의 공격을, 소아시아의 국경 지대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 민족인 셀주크 터키의 공격을 받았다. 급기야 11세기 말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파벌 싸움이 심각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는 1453년까지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1204년에는 4차 십자군의 공격을 받고 제국을 상실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서유럽 세계의 권력 파편화, 잦은 외침에 시달릴 정도로 약해진 비잔티움 제국의 국력,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분열과 더불어,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정치·군사적 상황 중의 하나는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의 해상력 쇠퇴였다. 11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은 나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다미에타,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발렌시아, 알메리아Almeria, 데니아Denia 등의 항구들은 시리아 북부, 마그레브, 아나톨리아 등지에서 들어온 목재로 선박을 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로 지중해 남부에 위치한 이슬람 세계는 지중해 북부에 위치한 서유럽 세계에 비해 항시적인 목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슬람의 지중해 지배가 서유럽 기독교 세계의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한 것은 11세기 후반부터였다. 11세기 제노바와 피사는 티레니아해에서 사라센 해적을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드리아해에서는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에 함대 지원을 해주는 등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었다.

12세기 이후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서는 선박 건조와 수송이 성장했던 반면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에서 선박 건조와 수송은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쇠퇴의 증거들은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티마 왕조는 12세기 초중반 아슈켈론 Ashkelon 앞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1123년 십자군은 다수의 이집트 함선을 침몰시켰다. 1153년에는 아슈켈론 항구가 기독교 세력에게 넘어갔고, 그 이후 동지중해에서 이슬람 선박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12세기 후반 이베리아반도 출신의 순례자 이븐 주바이르 Ibn Jubayr는 메카 순례를 다녀오면서 왕복 구간 모두에서 제노바 선박을 이용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십자군 시절에 이슬람 순례자가 기독교 선박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슬람 선박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13세기 중엽부터 시리아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한 맘루크 제국은 기본적으로 육상 세력이었기에 바다를 크게 중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동지중해 바다를 장악할 해군력을 유지하지 않았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미 11세기부터 아드리아해 장악을 포기했고, 때때로 베네치아 선박의 지원을 받았다. 11세기 후반 남부 이탈리아로부터 제국을 침입한 노르만 세력을 막기 위해 비잔티움 제국은 베네치아의 선박 원조를 받았고, 이러한 원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261년 미카엘 8세 팔레올로구스가 제국의 수도를 되찾고 잠시 해군을 증강했지만 이후 해군력 증가는 없었고, 1453년 최종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비잔티움 제국의 해군력은 지중해 바

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14-15세기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의 선박은 서유럽 선박보다 작고 성능이 떨어졌다. 그 결과 14-15세기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원거리 항해와 수송은 주로 서유럽 기독교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고, 비잔티움 선박은 동지중해 연안 항해와 수송을 맡았다. 비잔티움제국은 원거리 해양 수송을 주로 이탈리아 선박에 의존했다. 비잔티움 선박과 이슬람 선박은 서유럽 기독교 세계로 운항하지 않았고,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를 연결한 것은 서유럽 기독교 선박이었다. 중세 말 흑해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의 노예 수송은 제노바와 베네치아 선박이 담당했다. 소아시아 반도에서 생산된 명반 등의 상품을 대서양으로 수송한 것은 제노바 선박이었다. 향신료를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서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수송한 선박은 베네치아의 대형 갤리선이었다.

그러나 14세기 중엽 이후 지중해의 패권에 또 다른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변화는 새로운 강자들의 출현이었다. 서지중해에서는 아라곤 왕국이 부상했고, 동지중해에서는 오스만제국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었다. 아라곤 왕국은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서지중해 교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오스만은 1354년 발칸 반도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팽창을 시작했지만 1402년 티무르에 대패하면서 동지중해에서의 팽창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 패배 덕분에 비잔티움 제국은 반세기 동안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1453년 오스만에 무너졌다. 중세 말 아라곤과 오스만의 성장은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기존의 해상 세력들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네치아의 성공 신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외부 세계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접촉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슬람 세계,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과의 교역이 없었다면 중세 후반 베네치아의 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잔티움 세계와의 교류가 없었다면 중세 베네치아의 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부국으로 성장한 것은 비잔티움 세계와의 교역 덕분이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8세기에 이미 비잔티움 제국 시장에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1세기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에 함대 지원을 해준 대가로 상업 특혜를 받은 것을 발판으로 제국 시장에서 왕성한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11세기 말 이후 베네치아를 필두로 한 이탈리아 상인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경제를 침탈했다. 비잔티움의 그리스인들은 베네치아 상인들의 상관이 너무 부유하고 번창한 나머지 비잔티움 제국의 공권력을 비웃는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일 정도였다. 1204년 4차 십자군에 참여한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8분의 3을 획득함으로써 해상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이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 시장을 쉽게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 덕분이었다. “비잔티움 제국 없는 베네치아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는 브로델의 지적은 베네치아의 성공에 비잔티움 제국의 희생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비잔티움 세계와의 교역 못지않게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도 베네치아의 경제 발전에 중요했다. 교회는 수없이 이슬람과의 교역을 금지

했고 베네치아 상인들을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이교도인 이슬람과 교역한다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교회는 이슬람과의 무역 금지를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곤 했다. 1322년 교황청은 금지령을 어기고 맘루크 제국과 교역한 베네치아 상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다. 1323년 베네치아 정부는 교황청의 무역 금지령을 어긴 죄로 고발당한 상인들에게 항소권을 허용했다. 이슬람과의 무역 금지령을 둘러싼 교황청과 베네치아 사이의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중에도 베네치아는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327년 베네치아 도제 doge 조반니 소란초 Giovanni Soranzo는 교황 요하네스 22세에게 “우리 도시는 교역으로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며 무역 금지령을 완화해달라고 공손하고 간절하게(humiliter et cum instantia) 요청했다.

반복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는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 중세 말 베네치아의 최대 무역국은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맘루크 제국(1250-1517)이었다. 베네치아가 맘루크 제국과 활발한 교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맘루크 제국은 맘루크라 불리는 노예 출신 병사가 세운 정권이었다. 맘루크 제국 성립 이전부터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교도 출신의 소년 노예를 구입해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맘루크들이 성공해서 정권까지 잡은 것이었다. 맘루크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맘루크로 팔려와 총사령관까

지 출세한 아이박이었다. 그는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살리흐의 미망인 샤자르 알두르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맘루크의 술탄과 지배 세력들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노예 병사를 수입해 군사력을 유지했다. 맘루크 제국에 노예 병사를 공급해주는 상인이 바로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 맘루크 제국에 공급한 노예는 주로 킵차크 초원 출신의 터키인과 코카서스 지방 출신의 시르카시안Circassian이었다. 베네치아가 맘루크 제국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인도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신료였다. 게다가 향신료에서 나오는 관세 수입은 맘루크 제국의 핵심적인 재정 수입원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맘루크 제국은 베네치아 공화국에 최고의 상업 특혜를 제공했고, 베네치아 정부는 맘루크 제국으로부터 향신료를 수송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행 깬리 선단과 베이루트행 깬리 선단을 운영했다.

16세기에도 여전히 향신료 교역에서 베네치아와 맘루크 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개척하면서 기존의 지중해를 통한 향신료 교역에 큰 타격을 입히는 상황이 발생하자 베네치아는 맘루크 제국과 연합해서 인도양에서 포르투갈 세력에 공동 대응했다. 1509년 인도 북부의 디우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은 맘루크 제국, 구자라트 술탄, 그리고 깬리컷의 군주 자모린의 연합 세력과 포르투갈 사이의 전투였는데, 베네치아는 기독교 국가인 포르투갈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맘루크 제국을 지원했다. 베네치아가 맘루크 제국을 지원한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는 맘루크 제국을 통과

해서 들어오는 인도양 향신료를 구매해 이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신료 이외에도 맘루크 제국은 베네치아의 구미에 맞을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최고 성지이자 순례지인 예루살렘이었다. 맘루크와의 우호적인 관계 덕분에 중세 말 베네치아는 예루살렘 순례자 수송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예루살렘 순례자 수송을 전담하는 깔리 선단을 운영해서 큰 수익을 챙겼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순례는 맘루크 정부에게도 꽤 괜찮은 수익 사업이었다. 베네치아는 동지중해의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와 활발한 교역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주도하면서 동서 문명 교류의 교차로 역할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중해 동쪽의 이슬람 세계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과의 교류가 유럽이 근대 세계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럽의 근대는 동방에서 온 빛 덕분에 가능했고 동방의 빛을 유럽에 잘 전달한 곳이 바로 베네치아였다.

다양한 상품을 공급해주는 동지중해의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 못지않게 베네치아가 중세 후반 중개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유럽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 동방 상품을 구매할 재력이 있는 구매처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베네치아 상품을 구매한 최고의 고객은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이었다. 북부 이탈리아는 11세기 이

후 서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남부 독일이 중세 말 베네치아의 제일 고객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은 중부 유럽에서의 은광 개발이었다. 이슬람 세계와의 무역에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던 베네치아는 이러한 무역 차액을 귀금속, 즉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지중해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은 향신료, 비단과 같은 값비싼 제품이었던 반면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에 공급하는 물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과 모직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 무역을 계속해야 했던 이탈리아 상인들은 항상 차액을 메울 수 있는 귀금속, 즉 금과 은이 절실히 필요했다. 서유럽은 금이 풍부하게 나는 대륙이 아니었기에,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의 이탈리아 상인들은 수단Sudan의 금을 확보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었다. 중세 후반 중부 유럽에서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서유럽 상인들은 금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은광 개발 덕분에 13세기 후반부터 베네치아와 남부 독일 사이의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베네치아는 동지중해로부터 들여온 상품을 독일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결제 대금을 은으로 받아서 이를 동방 상품 구입에 활용할 수 있어 좋았고, 독일 상인들은 이 은을 이용해 베네치아 시장에서 더 많은 동방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독일 상인들이 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린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원면이었다. 독일 상인들은 베네치아에서 완제품

인 면직물을 구매하지 않고 원료 상태인 원면을 구매해 남부 독일에서 가공하여 푸스티안(fustian)이라 불리는 혼방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독일 상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베네치아 정부는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독일 상인들이 베네치아 경제에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세 말 베네치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좋은 곳에 위치한 외국 상관이 바로 독일 상관이었던 사실 또한 독일 상인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당시 베네치아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던 리알토 다리 바로 옆에 독일 상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 상관이 베네치아의 허파라는 필립 브룬스타인의 지적은 베네치아 경제에서 독일 상인들이 차지하고 비중이 컸음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중세 베네치아가 믿기지 않는 성공 이야기를 써나가는 데 유리했던 외부의 구조적 요인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외부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베네치아에 유리했다 해도 베네치아인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라는 신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향신료 무역

1384년 2월 6일 베네치아에서 작성된 발루타(valuta)라 불리는 상품 시세표의 첫머리에 나오는 상품은 후추, 생강, 계피 등의 향신료였다. 이 상품 시세표는 프라토 상인 프란체스코 다티니가 남긴 문서

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상업 문서 중에 베네치아에서 작성된 상품 시세표는 대략 24개 정도다. 통상적으로 상품 시세표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 상품 가격과 판매 단위가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상품 시세표를 통해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이 거래되었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경기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와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초 유럽의 주요 상업 도시들에서 작성된 상품 시세표를 상호 비교 분석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베네치아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주요 상품들은 대략 2백 가지였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상품은 후추와 생강이었으며, 후추와 생강의 판매 단위가 유럽 시장 중에서 가장 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베네치아는 유럽 제일의 향신료 도매시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품 시세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말 후추와 생강 등의 향신료는 베네치아의 핵심 교역 품목이었다. 베네치아는 향신료 교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향신료는 중세 지중해 교역의 핵심 품목이었고, 중세 말 유럽인들이 향신료의 원산지를 찾아서 인디아로 가는 해상 탐험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대를 연 상품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상품이다 보니 향신료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향신료를 둘러싼 환상적인 이야기들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역사가들도 향신료 교역의 비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중세 지중해 교역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향신료 무역의 중요성을 지나치

게 과장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활용되면서 향신료 교역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곡물, 직물, 면화 등 향신료보다 상대적으로 싼 다양한 상품들이 지중해에서 대규모로 교역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네치아의 향신료 교역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신료가 베네치아의 부를 만든 핵심 상품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베네치아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았다. 15세기 초 향신료는 베네치아 전체 교역량에서 20%를 넘지 않았고, 면화 교역액이 후추 교역액과 비슷했다.

해상 수송 인프라

베네치아가 지중해 바다에서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보다도 선박이었다. 15세기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제노바를 제외하면 중세 말 베네치아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영한 해양 세력은 없었다. 베네치아의 원형 범선과 대형 갤리선들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흑해와 대서양의 주요 항구들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인력을 실어 날랐다.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선박들은 자신들의 바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반면 베네치아 선박은 서유럽 기독교 바

다는 물론이고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통제 하에 있는 바다 구석구석까지도 항해했다.

중세 말 베네치아가 보유한 선박의 상대적 비중과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고대부터 16세기까지 지중해를 누볐던 다양한 선박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중해 선박의 발전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어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15세기 말 콜럼버스와 다 가마가 타고 갔던 선박과 15세기 초 정화가 인도양 원정에 사용했던 선박을 비교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선박의 현격한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대항해 초기에 사용했던 선박은 제노바와 베네치아가 지중해에서 사용했던 선박과 비교해보면 소형 선박에 지나지 않았다. 다 가마의 선박이 150톤급 정도의 중소형 선박이었다면 제노바가 대서양 노선에 투입한 범선은 1000톤이 넘어가는 대형 범선이었다. 물론 정화 선박의 기함이 최대 2000톤급의 선박임을 생각할 때 여전히 유럽과 아시아 선박의 크기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지중해 바다에서는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선박이 사용되었다. 폭보다 길이가 긴 유형의 선박long ship과 폭이 조금 넓은 둥근 유형의 선박round ship이 있었다. 이 두 유형의 선박은 동력과 용도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주로 노를 이용했던 반면 후자는 바람을 이용했다. 노를 주 동력원으로 이용한 전자는 주로 전투용 선박이었고, 후자는 상품과 사람을 실

어 나르는 상선이었다. 전투용 선박으로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롱십 long ship은 갤리였다. 갤리선의 노잡이가 노예였다는 이야기는 특정 시대에만 해당한다. 로마제국의 갤리선은 노예를 이용했던 반면 중세 베네치아의 갤리선의 노잡이는 자유민 선원이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지중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졌다. 전성기에 인구 50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제국의 수도 로마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매년 곡물 선단을 파견했는데 이때 사용된 선박은 1000톤이 넘는 대형 선박이었다. 반면 중세 초 지중해에서 사용된 선박은 100톤이 되지 않는 소형 선박이 많았다. 이렇게 선박의 크기가 작아졌던 것은 교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 후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선박의 크기도 점진적으로 커졌다. 베네치아가 지중해 중요 해상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1000년 경이었다. 10세기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해안의 이슬람 세력과 대립하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에 해상 원조를 제공할 정도로 성장했다.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해군력 약화였다. 이슬람의 해상 공세가 치열했던 8세기 초까지만 해도 비잔티움은 나름 해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불’이라고 불렸던 화기를 장착한 비잔티움 제국의 드로몬Dromon(갤리선의 일종)은 이슬람 해상 공격을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은 아드리아해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

고 그 결과 아드리아해는 해적들의 바다가 되었고, 이슬람은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섬을 빼앗았다. 1000년 베네치아 도제 피에트로 2세 오르세올로Pietro II Orseolo(재위 991-1008)는 달마티아 해안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해적들을 몰아내고 달마티아 도시들의 충성서약을 얻어냈다. 4년 후 그는 함대를 이끌고 바리까지 진출해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다. 달마티아 해안을 확보한 것을 축하하려고 베네치아는 도제가 출전한 날이자 그리스도가 승천한 날에 장엄한 축제를 벌였다. 이후 도제는 매년 그리스도 승천일에 도제 전용선을 타고 정부 관리들과 함께 베네치아의 외항인 리도Lido까지 진출해, “우리과 바다를 향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빌고, 사제들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뿌리고 남은 성수를 바다에 쏟으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화되리라.”라는 시편(51장 7절)의 찬송가를 불렀다. 이 축제는 12세기 ‘바다와의 결혼식’ 행사로 공식화되었다.

1300년경 베네치아는 경쟁자였던 제노바와 함께 지중해 항해 혁명을 주도하면서 지중해 해상 수송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항해 혁명nautical revolution’은 선박과 항해 기술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을 뜻한다. 제노바가 주도했던 혁신은 초대형 범선 건조였다. 중세 말 제노바가 초대형 범선을 제작한 이유는 동지중해에서 생산된 염색 재료인 명반을 대서양으로 대량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베네치아가 이룬 혁신은 갤리선 개량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지중해에서 고대부터 사용되었던 갤리선은 전투용 선박이었고, 화물을 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크지 않은 중소형 선박이었다. 베네치아는 이 전투용 갤리선을 크게 만들어 화물 수송 선박으로 사용했다. 그런 연유로 중세 말 베네치아 갤리선은 ‘대형 갤리선grosse galere’ 또는 ‘갤리 상선galere da mercato’으로 불렸다. 15세기 베네치아가 대서양 노선에 투입한 갤리 상선은 200-300톤급으로, 당시까지 지중해에서 사용되었던 갤리선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선박이었다. 베네치아 갤리선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동력이 노가 아니라 바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세 말 베네치아가 이룬 더욱 중요한 혁신은 국영 조선소Arsenale에서 갤리 상선을 건조해 무다muda라 불리는 지중해 제일의 해상 수송 체계를 도입한 것이었다. 국영 조선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3세기부터였다. 13세기 열 개의 작업장이 있었고, 한 작업장은 세로 46미터, 가로 16,5미터, 높이 7미터의 규모였고, 이곳에서 10척의 전투용 갤리선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었다. 1326년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신 조선소는 80척의 갤리선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신 조선소를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제노바와의 해전과 증가하는 교역이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주로 전함, 즉 경 갤리light galley를 건조하다가 신 조선소가 만들어지면서 갤리 상선도 함께 건조하기 시작했다. 1464년부터는 전함에서 사용할 청동 포탄도 제작했다. 포탄뿐만 아니라 전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들, 돛, 노, 돛대, 밧

줄 등 선박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산했다. 그 덕분에 중세 말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는 유럽 제일 규모의 조선소로 성장했다. 오스만제국과의 해상 전투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 정부는 최신 조선소를 추가로 만들었다. 1차 베네치아-오스만 전쟁에서 에비아섬을 상실한 베네치아는 더 많은 전투함을 좀 더 신속하게 건조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1473년 시작된 최신 조선소 건설 공사는 1570년에 가서야 완료되었다. 해전에 필요한 포탄 제작 작업장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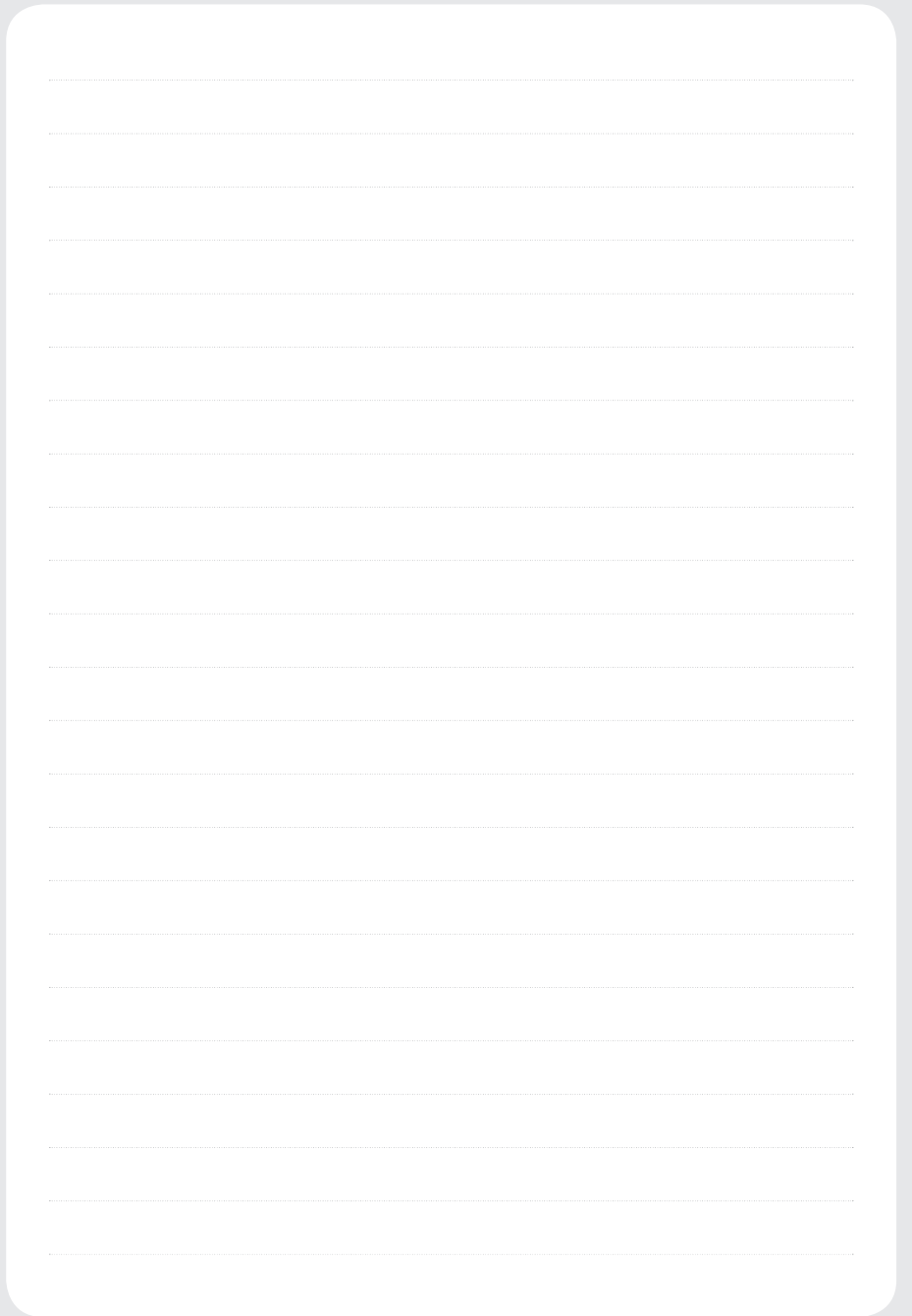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그림 2] 1500년경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

하지만 이후 국영 조선소는 점진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1504년을 정점으로 갤리 상선의 건조는 점차 줄어들었다. 대형 갤리

를 상선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었고, 1535년 무렵이면 깰리 상선을 이용한 해상 운송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국영 조선소는 원래의 기능인 전투용 깰리를 건조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5세기 베네치아가 보유한 선박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1422년 베네치아 도제였던 토마소 모체니고의 임종 연설은 당시 베네치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선박과 조선업의 규모를 들려준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200암포라급 선박 3천 척과 여기에 고용된 1만 7천 명의 선원이 있습니다. 중대형 범선 300척이 있고, 여기에 고용된 8천 명의 선원이 있습니다. 매년 45척의 중대형 깰리선이 운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만 천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15세기 초 베네치아는 총 3,34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수치는 유럽 제일이었다. 수송과 선박 건조에 고용된 인원만 3만 6천 명에 달했다. 당시 베네치아 인구가 본섬과 해외 영토를 포함해 20만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수송과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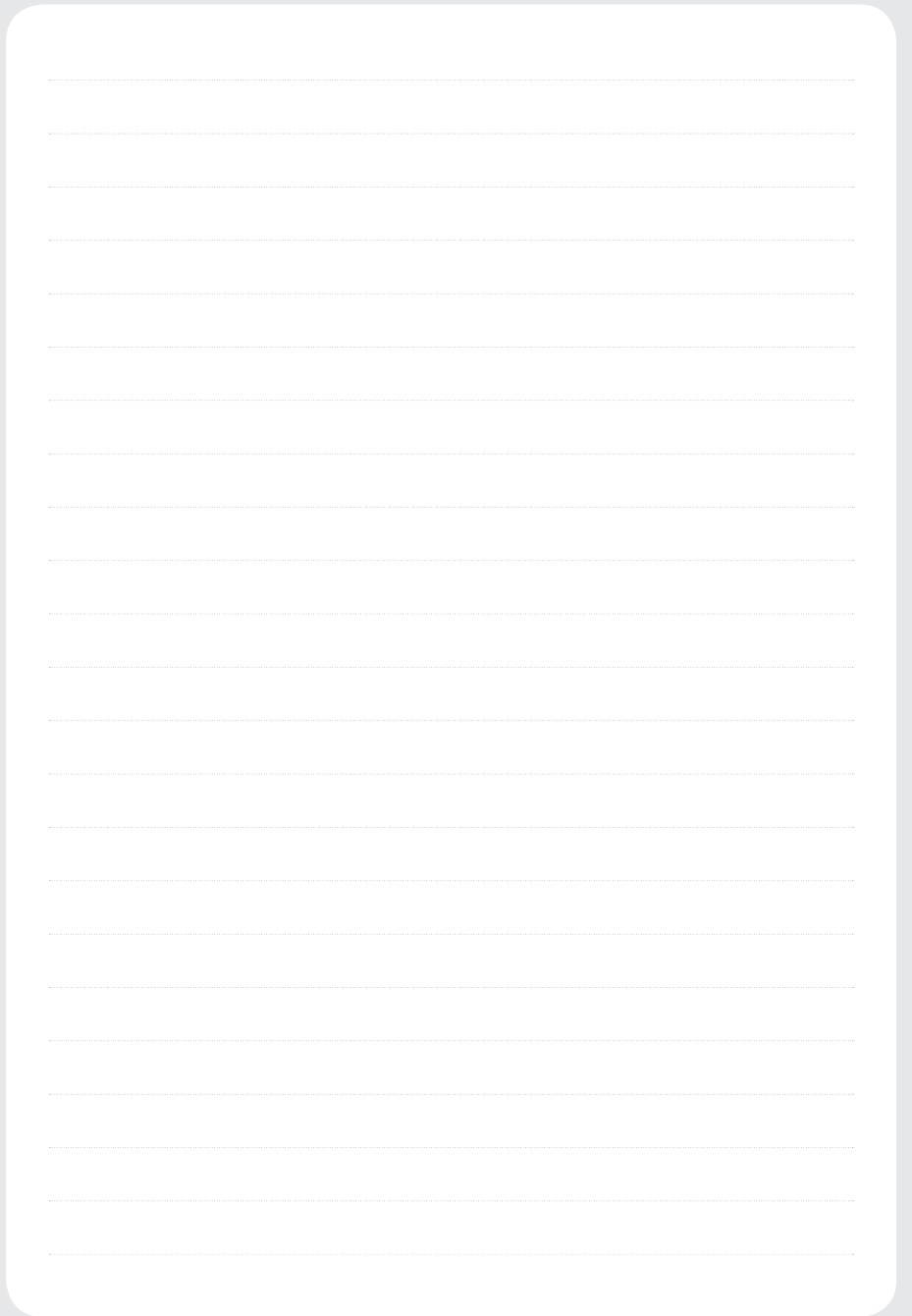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rectangle is positioned on a dark grey background.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a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_ **3**

중국 남조와 서역의 대외교류

조윤재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西域과 南朝의 交渉에 앞서 그 이전시기인 漢代부터, 三國, 魏晉代를 걸쳐 中國은 서역과 잦은 往來와 교류가 있어왔다. 그래서 南朝정권의 서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이미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中國 자체의 정국변화에 따라 교류의 빈도와 규모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특히 南朝 시기는 정치적 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라 南朝의 경우 서역과의 직접적인 접근과 交渉이 다소 불편했던 시기였다. 한편 로마제국 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도 東西文化 交流의 네트워크(network)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¹⁾. 반면 北朝정권의 對西域 交渉은 지리적 환경과 역사성으로 인해 여전히 매우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南朝정권과 서역의 交渉이 단절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²⁾. 交渉의 통로는 사실 더욱 다양해졌으며 특히 서남교통로와 남해 연안해로의 새로운 交渉루트가 확보됨으로써 서역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여전히 진행되었다³⁾.

또 南北朝의 교류가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경직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에 北朝에 투영되어 있던 서역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했기에 간접적인 兩者의 접촉과 교류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1) 石雲濤, 2007, 『三至六世紀絲綢之路的變遷』, 文化藝術出版社.

2) 『魏略』西戎傳引自『三國志·魏書』烏桓鮮卑東南夷傳(裴松之注)

3) 『梁書』海南諸國傳序

배경은 南朝사회에 적지 않은 서역의 문화적 “遺痕”들을 남기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며, 소위 이러한 “遺痕”의 반영은 실제로 南朝의 문물에서도 적지 않게 간취되고 있다. 서역과 南朝의 交涉에 앞서 그 이전시기인 漢代부터, 三國, 魏晉代를 걸쳐 잦은 往來와 교류를 이루어 왔다. 南朝정권의 서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이미 성숙된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政治, 經濟, 文化的인 흡수와 수용은 中國의 판세와 政局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진행되었다. 南北朝 시기는 정치적 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라 南朝의 경우 서역과의 직접적인 접근과 交涉이 다소 불편했던 시기였으며 로마제국 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도 東西文化交流의 네트워크(network)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南朝와 서역의 구체적 交涉상황은 일부 문헌기록에서 관찰되고 있어 당시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데 객관적 증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헌기록과 관련 고고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고 또 南朝의 대서역 交涉과정과 방식에 대한 고찰도 병행함으로써 당시 동서문물 교류의 일면을 조명해 보려한다.

1. 南朝의 對西域 交涉 방식

1) 北朝와의 交涉을 통한 간접적 교류

西晉 멸망 후 洛陽 및 京師地域의 상층 인사들이 대규모로 南渡를 실행하게 되자 중원지역은 문화적 重心地라는 원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五胡十六國”시기의 장기적인 전란과 북방 주변민족의 來侵은 결국 江南에 수립된 東晉을 漢人의 정통정권으로 옹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긴박한 민족 간의 분쟁과 갈등 상황은 군사적인 충돌과 정치적 적대가 팽배하는 혼란국면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지역 간의 往來와 교류는 단절되지 않았다. 특히 五胡十六國時期 북방의 諸政權은 東晉과 여러 차례 교류를 시도하였고 北朝시기에 이르면 北魏의 孝文帝가 漢化過程 중 적극적인 강남문화의 수용을 꾀한 바도 있다. 이는 남북 양자의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생성케 하였으며 北朝의 서역문화가 다시 강남지역으로 이입되는 교류의 통로를 형성하게 된다. 南朝정권과 서역의 交涉이 北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서역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여전히 진행되었으며 南北朝의 교류를 통한 간접적 交涉도 가능한 시대였다.

2) 서남 실크로드인 소위 “河南道”를 통한 서역과의 직접적 교류

河西走廊, 玉門, 陽關을 거쳐 西域으로 들어가는 전통적 交涉루트가 北朝정권에 의해 점거되면서 南朝는 益州를 경유해 涼州 지역의 諸涼정권과 통교함으로써 서역과의 交涉루트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河南道”루트라 칭하기도 한다⁴⁾. 서역 제국들은 당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원인으로 土谷渾의 양해를 얻어 南朝에 견사하였다. 주로 차거고창, 麴氏高昌, 白氏龜茲, 于闐, 葛盤陀, 柔然⁵⁾, 壓達(Ephtal, 에프탈), 粟特(Sogd, 소그드), 波斯(Sasan-Persia, 사산조 페르시아), 天竺國, 白題末局 등의 정권이 南朝에 여러 차례 견사하였다. 이러한 交涉활동은 자연스럽게 서역의 문물이 南朝사회에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 서남 해안 항로를 통한 서역과의 직·간접적 교류

고대 中國과 서역 각국의 해상교통은 주로 南海와 印度洋 항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印度洋을 연결하여 다시 지중해를 경유하여 유럽에 도달하는 항로가 가장 설득력 있는 교통로로 알려져 있다⁶⁾. 이러한 항해루트를 “해상실크로드”라 부르고 있다. 中國이 서남 해안 항로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외적 交涉을 실행한 기록은 『漢

4) 唐長孺, 1983, 「南北朝期間西域與南朝的陸道交通」, 『魏晉南北朝史論拾遺』, 中華書局.

5) 『南齊書』卷五十九·茹茹虐傳: “常經河南道而抵益州.”

6) 石雲濤, 2003, 『早期中西交通與交流史稿』, 學苑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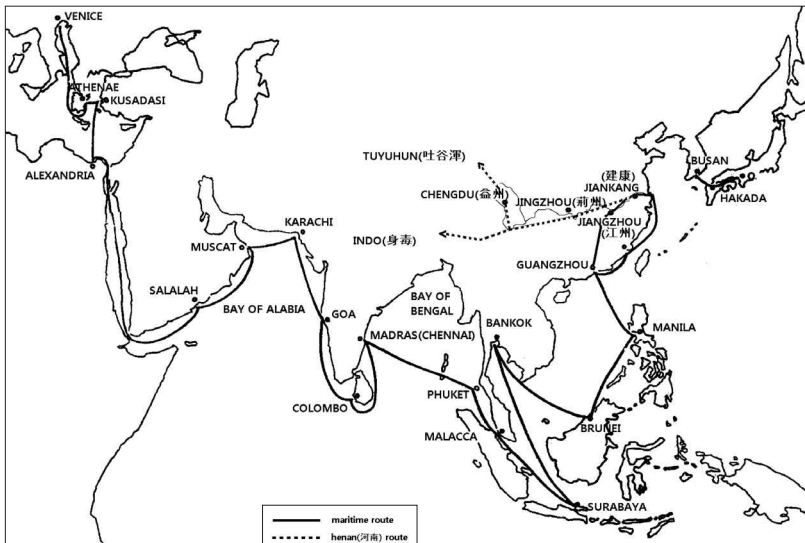
書』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원전 222년 秦帝國의 통일 후 南越地域에 대한 정복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해연안에 閩中郡, 南海郡, 桂林郡, 象郡 등의 정치적 실체를 확보하면서 西南海 연안의 정권들과 해상을 통한 교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이다. 漢代에 접어들며 西南海에 대한 교류의 빈도수와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⁷⁾. 전시기의 이러한 대외교류의 현상은 이후 강남과 영남지



[그림 1] 하남도를 이용한 서역과의 교류(陳炎, 1996)

7) 陳炎, 1996, 『海上絲綢之路與中外文化交流』, 北京大學出版社.

역을 점거한 육조정권의 대외활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특히 南朝시기에 와서도 漢武帝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던 南洋 지역과의 교류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로마(大秦)와 페르시아(波斯)의 무역상들도 해상항로를 통해 南洋지역의 국가들은 물론 中國 내륙에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南朝정권과 서역의 직접적인 交涉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림 2] 유네스코 해상실크로드탐사 복원도
(劉迎勝, 1995, 『絲綢文化·海上卷』, 浙江人民出版社에서 전재)

2. 南朝와 西域의 交涉 情狀

1) 南朝와 서역의 交涉

南朝와 서역의 交涉에 대한 情狀은 北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⁸⁾.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역대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南朝와 서역의 교류 記事는 주로 南朝에 대한 西域의 遣使가 대종을 이룬다. 일부 서역정권에 대한 南朝의 遣使도 보이지만 그 수는 미미하며 대부분 군사적 필요에 의해 使節을 보내 交涉한 경우였다.

[표 1] 南朝에 대한 西域의 遣使

紀年	南朝·서역간의 교류(공물)	출전
439년 元嘉十六年	沮渠高昌 南朝에 견사	『魏書』卷一百二·西域傳
442년 元嘉十九年	沮渠高昌 南朝에 견사	『南史』卷二·宋本紀 『魏書』卷三十九·李寶傳
443년 元嘉二十年	沮渠高昌 南朝에 견사	『宋書』卷五·文帝紀
444년 元嘉二十一年	沮渠高昌 南朝에 견사	『資治通鑑』卷一百二十四·宋紀
459년 大明三年	沮渠高昌 劉宋에 견사	『宋書』卷六·孝武帝本紀
502-519년 天監年間	鞠氏高昌 南朝에 견사	『太平廣記』卷八十一·梁四公
535-546년 大同年間	鞠氏高昌 南朝에 견사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03년 天監二年	白氏龜茲 南朝에 견사	『南史』卷六·梁本紀
521년 普通二年	白氏龜茲 南朝(梁)에 견사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10년 天監九年	于闐 南朝에 견사(方物)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14년 天監十三年	于闐 南朝에 견사(波羅波步障)	『南史』卷七十九·夷陌傳

8) 余太山, 1995, 『西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중국 남조와 서역의 대외교류

紀年	南朝·서역간의 교류(공물)	출전
519년 天監十八年	于闐 南朝에 견사(琉璃器)	『南史』卷七十九·夷陌傳 『南史』卷六·梁本紀
541년 大同七年	于闐 南朝에 견사(玉佛)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46년 梁中大同元年	渴盤陀 南朝에 견사(方物)	『南史』卷七十九·夷陌傳
442년 元嘉十九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南史』卷二·宋本紀 『宋書』卷五·文帝本紀
463년 大明七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南史』卷二·宋本紀 『南齊書』卷五十九·茹茹虓傳
467년 泰始三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宋書』卷八·明帝紀
468년 泰始四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宋書』卷八·明帝紀
471년 泰始七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宋書』卷八·明帝紀
472년 泰豫元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宋書』卷九·后廢帝紀
480년 建元元年	柔然 南朝에 견사(方物)	『南齊書』卷五十九·茹茹虓傳 『南史』卷四·齊本紀
483-493년 永明年間	柔然 南朝(齊)에 견사(醫員, 工匠, 指南車 등을 南齊에게 원하였으나 거절당함)	『南齊書』卷五十九·茹茹虓傳
515년 天監十四年	柔然 南朝에 견사 ⁹⁾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16년 天監十五年	柔然 南朝에 견사	『梁書』卷二·武帝紀
520년 普通元年	柔然 南朝에 견사	『梁書』卷五十四·諸夷傳
528년 大通二年	柔然 南朝에 견사	『南史』卷七·梁本紀
529년 中大通二年	柔然 南朝에 견사	『南史』卷七·梁本紀
538년 大同四年	柔然 南朝에 견사	『梁書』卷二·武帝紀 『南史』卷七·梁本紀
541년 大同七年	柔然 南朝에 견사	『梁書』卷三·武帝紀 『南史』卷七·梁本紀
516년 天監十五年	壓達(Ephtal) 南朝에 견사(方物)	『梁書』卷五十四·諸夷傳
520년 普通元年	壓達 南朝에 견사(眞物)	『梁職貢圖』 ¹⁰⁾ 『南史』卷七·梁本紀

9) 永明年간의 견사에 工匠 및 物品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그 이후부터 柔然의 對南朝 遣使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10) 현존하는 殘卷의 내용은 十二國의 使臣圖像과 十三國의 題記만이 전해진다. (滑國, 波斯, 龜茲(新疆庫車縣一帶), 宕昌(甘肅省宕昌縣一帶), 狼牙脩(Lankasuka), 鄧至(白水羌, 四川省北部), 周古柯, 呵跋檀, 胡蜜丹, 白題, 末國)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紀年	南朝·서역간의 교류(공물)	출전
526년 普通七年	壓達 南朝에 견사(貢物)	『梁書』卷三·武帝紀
535년 大同元年	壓達 南朝에 견사(貢物)	『梁書』卷三·武帝紀
541년 大同七年	壓達 南朝에 견사(貢物)	『梁書』卷三·武帝紀
441년 元嘉十八年	粟特(Sogd) 南朝에 견사	『南史』卷二·宋本紀
457-464년 大明年間	粟特(Sogd) 南朝에 견사(火浣布, 獅子, 汗血馬)	『南史』卷二·宋本紀
530년 中大通二年	波斯(Persia) 南朝에 견사(佛牙)	『南史』卷七十九·夷陌傳
533년 中大通五年	波斯(Persia) 南朝에 견사	『南史』卷七·梁本紀
535년 大同元年	波斯(Persia) 南朝에 견사	『梁書』卷三·武帝紀
503년 天監二年	中天竺國 南朝(梁)에 견사	『梁書』卷二·武帝紀
504년 天監三年	北天竺國 南朝(梁)에 견사	『梁書』卷二·武帝紀
524년 普通元年	白題末國 南朝(梁)에 견사	『南史』卷七·梁本紀 『南史』卷七十九·夷陌傳

[표 2] 西域에 대한 南朝의 遣使

紀年	南朝·서역간의 교류(공물)	출전
428년 元嘉五年	南朝(劉宋) 河南國에 견사 ¹¹⁾	文獻記載 間的 記述이 相異
477-479년 升明年間	南朝(劉宋) 柔然에 견사(군사 동맹)	『資治通鑑』卷一百三十五·齊紀
479년 建元元年	南朝(劉宋) 柔然 및 河南에 견사	『南齊書』卷五十九·河南傳
485년 永明三年	南朝(劉宋) 柔然 및 河南에 견사	『資治通鑑』卷一百三十六·齊紀
490년 永明八年	南朝(劉宋) 河南國에 견사	『南齊書』卷五十九·河南傳 『南史』卷七十二·丘冠先傳
491-493년 永明年間	南朝(劉宋) 丁零(高車)에 견사	『南齊書』卷五十九·茹茹虜傳

11) 出使의 시점과 목적 등의 기술이 각 문헌자료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남의 위치비정은 남북朝시기 吐谷渾이 접거하고 있던 靑海省의 황하 이남지역 일대가 유력하며 南朝의 송, 제, 양은 하남의 수령을 하남왕으로 봉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2) 불교 승려의 출경 및 내입

이러한 일반적 성격의 交涉 情狀 외에 비교적 주목해야 할 대목은 南北朝시기 서역지역에서 내입한 외래 승려들과 반대로 南朝에서 서역지역으로 출경한 승려들의 往來이다. 사실 이 시기 불교의 전파루트와 승려들의 取經路線은 中古時期 中國의 대외교통 및 문화적 漸入과 매우 밀접한 연동성을 보여주고 있다¹²⁾. 관련기사의 일람표를 참고하면 교류의 빈도수, 교통루트, 사절의 규모 및 貢物 등에 관한



[그림 3] 법현의 구법루트(中華文明傳眞, 2002)

12) 嚴耕望, 2007, 『魏晉南北朝佛教地理稿』, 上海古籍出版社.

일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구법승 법현은 後秦 弘始元年(東晉 隆安三年, 399년) 長安을 출발하여 412년 귀국함으로써 약 13년간 출행을 하고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 建康城으로 가 佛經翻譯 작업에 몰두하는데 이 시기 『佛國記』도 편찬하게 된다.

[표 3] 관련 문헌기재 일람표

紀年	僧侶 및 路線	出典
420년 永初元年	釋曇無竭/ 高昌, 龜茲, 沙勒, 疎勒, 西아시아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23년 景平元年	佛馱什(北印度)/ 楊洲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24년 元嘉元年	曇摩密多(北印度)/ 龜茲, 涼州, 江左, 蜀, 荊州, 京師(建康)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24년 元嘉元年 442년 元嘉十九年	纏良耶舍/ 沙河, 京師, 岷蜀, 江陵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24-437년 元嘉年間	釋智猛(京兆新豐)/ 天竺, 蜀, 成都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33년 元嘉十年	僧伽跋摩(天竺)/ 流沙, 京邑(建康)	『大藏經』2059『高僧傳』卷三
436-452년 元嘉末年	釋慧覽(酒泉)/ 최초로 河南道 全路程을 종주	『大藏經』2059『高僧傳』卷十一
439년 元嘉六年	沮渠安陽/ 姑藏, 建康	『大藏經』2059『高僧傳』卷二
연대불명	釋僧隱/ 하남도를 통해 巴蜀, 江陵에 도착	『大藏經』2059『高僧傳』卷十一
475년, 元徽三年	釋法獻/ 巴蜀, 苴苴, 于闐, 葱嶺	『大藏經』2059『高僧傳』卷十一
479년 升明三年	釋玄暢/ 岷江支道 沿線, 南朝 西北邊界地域	『大藏經』2059『高僧傳』卷七
518년 神龜元年	惠生 및 宋雲/ 流沙, 吐谷渾, 鄯善, 且末城, 于闐	『洛陽伽藍記』卷五·城北
502년 天監初年	釋明達(康國, 사마르칸드)/ 吐谷渾, 益州	『大藏經』2060『續高僧傳』卷二十九
559년 武成初年	闐那堀多(간다라)/ 迦畢試國(Bactria), 渴盤陀, 于闐, 吐谷渾, 壓達, 和田	『大藏經』2060『續高僧傳』卷二

3. 고고자료로 본 서역과 南朝의 交涉

中國 경내에서 발견된 魏晉南北朝時期 서역계(中央아시아계 및 서아시아계 유물) 유물은 주로 貨幣, 金銀器, 織物, 琉璃器物 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¹³⁾ 유물의 대다수가 北朝지역의 유적 혹은 유구에서 검출되었다. 南朝지역에서 출토된 서역계 유물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출토유물 외에도 건축양식, 불상양식 등에서도 서역의 영향이 표출되고 있다.



[그림 4] 魏晉南北朝時期 중앙 및 서아시아 유물의 출토(中華文明傳眞, 2002)

13) 宿白, 1986, 「中國境內發現的中亞與西亞遺物」, 『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 大百科全書出版社.

1) 南朝지역 출토 서역계 유물

① 琉璃容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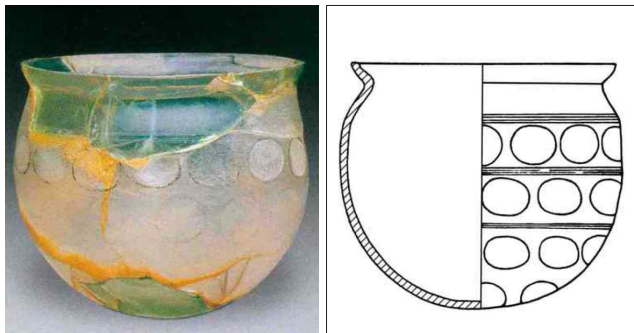
南方地域 출토 유리기물의 경우 대부분 東晉時期的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량은 15기의 육조고분에서 모두 18점의 유리기물이 발견되었다. 이 중 南朝시기에 해당하는 고분은 단 1기로 유리기물의 사용에 있어 시대적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리기물의 유입과 단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六朝時期 전체의 상황을 언급해야 하기에 南朝 以前時期的 출토품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육조시기 고분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리기물에 대한 산지 분석 결과 대부분 로마계통의 소위 “Roman glass”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분석결과 페르시아 혹은 중앙아시아계(Kushan 혹은 Bactria)의 제품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¹⁴⁾. 특히 유리기물의 원산지 분석은 원료의 원산지와 제품의 생산지를 구분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의 전파, 무역 및 외래계 인구의 이주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탐색해야만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

[표 4] 六朝古墳 출토 琉璃容器

	출토고분	고분연대	수량, 기종	기물특징(단위:cm)
1	湖北鄂城鄂鋼飲料廠	동오	1	무색투명
2	湖北鄂州五里墩	서진말-동진초	2, 완	무색투명, 담황록색, 기고:9.4

14) James W. Lankton(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UCL Institute of Archaeology, LondonWith), 2010, Silk Road Glass in Korea: Archaeology and Scientific Analysis, 제11회 고분문화연구회 학술발표문, 부산박물관. 王志高, 2011, 『六朝墓葬出土玻璃容器漫談-兼論朝鮮半島三國時代玻璃容器的來源』, 제13회 고분문화연구회 학술발표, 경기도립 박물관.

	출토고분	고분연대	수량, 기종	기물특징(단위:cm)
3	南京象山	동진초	2, 통형배	무색투명, 담황록색, 기고:10,4
4	南京仙鶴觀	동진초	1, 완	투명담청색, 기고:7
5	南京富貴山	동진초	1, 완	투명담남색, 기고:7,8
6	南京大學北園	동진초	1, 완	무색투명
7	南京上坊李村	동진초	1, 직구배	남색투명
8	南京石門坎	동진초	1, 완	청록색
9	安徽當塗來隴村	동진초	1, 완	담록색
10	廣州獅帶崗	동진초	1, 완	남색
11	廣東肇慶坪石崗	325년, 東晉太寧三年	1,	담록색투명, 기고:6
12	湖北漢陽蔡甸	동진초	1, 병(?)	담황록색투명
13	南京汽輪電機廠	동진중기	2, 통형배	담청색투명, 남색
14	南京郭家山	동진말	殘片	남색, 무색투명, 녹색
15	江蘇句容春城	439년, 劉宋元嘉六年	1, 완	담청색투명, 기고:6,5



[그림 5] 湖北 鄂州 五里墩 M4012 출토 유리완(王志高, 2011)

1978년 湖北 鄂州 五里墩 M4012에서 출토된 琉璃碗. 고분에서는 모두 2점이 출토되었으나 한 점만이 복원가능하다. 고분의 연대는 西晉에서 東晉初期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6] 南京 象山M7 출토 유리완(王志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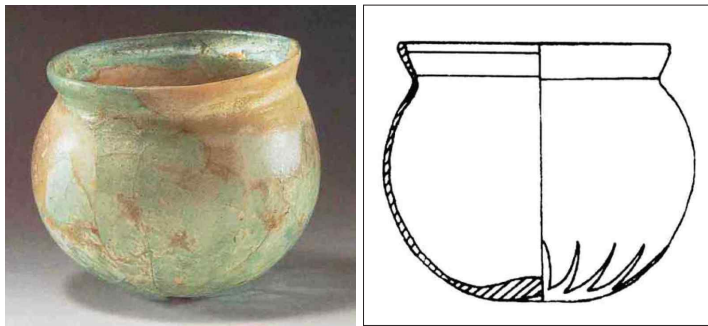
1970년 南京 象山M7에서 2점의 유리완이 출토되었으며 기표 전면에는 cutting 기법으로 타원형 무늬를 표현하였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7] 南京 仙鶴觀M6 출토 유리완(王志高, 2011)

1988년 南京 仙鶴觀M6에서 1점 출토되었으며 건부에 3조의 세 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기표면에는 장타원형 문양을 동심원 형태로

견부에서 저부까지 시문하고 있다. 고분연대는 동진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8] 南京 富貴山 M4 출토 유리완(王志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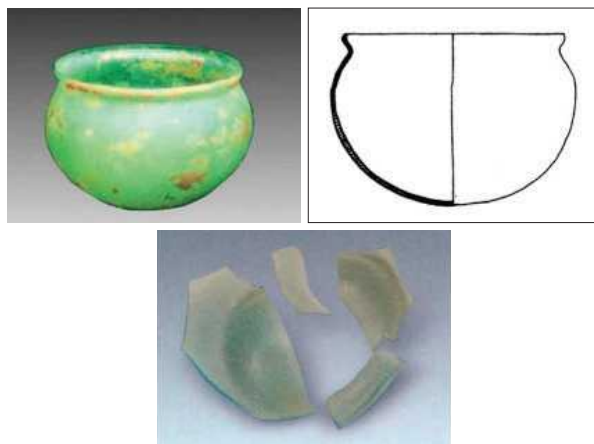
1997년 南京 富貴山 M4에서 1점 출토되었으며 底部에는 불꽃무늬를 시문하고 있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9] 남경대학 북원동진묘 출토 유리완 잔편, 남경 상방 이촌 동진 초기묘 출토 유리편(왕지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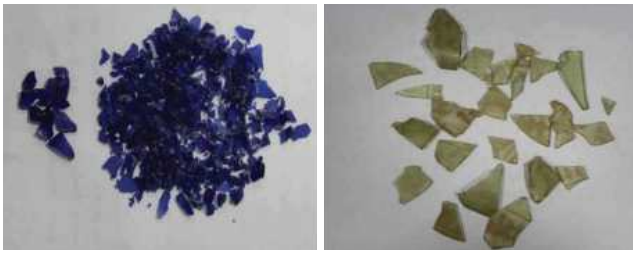
南京大學 北園東晉墓에서 출토된 유리완 殘片으로 투명의 유리제품이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 중후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진의 帝陵

으로 보고 있다. 2007년 남경 上坊李村東晉初期墓에서 출토된 유리편으로 남색유리완의 기종일 가능성이 높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초기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0] 안휘성 당도현 동진묘 출토 유리완, 광둥성 석강 동진묘 출토 유리편(王志高, 2011)

2005년 安徽省 當塗縣 來隴村 동진초기묘에서 4점의 담녹색 유리 파편이 수습되었는데 동일개체의 파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초기로 파악하고 있다. 2001년 廣東 肇慶坪 石崗 東晉太寧三年(325년)墓에서 유리완 1점이 출토되었는데 기벽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것이 특징이다. 고분의 연대는 紀年墓로서 下葬年代가 325년이다.



[그림 11] 남경 機輪電機廠 東晉墓 출토 유리편(王志高, 2011)



[그림 12] 남경 괘가산 M13 출토 유리편(王志高, 2011)

1981년 南京 機輪電機廠 東晉墓에서 유리잔편 출토되었는데 담청색과 남색의 두 개체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의 연대는 동진중기로 설정하고 있다. 2001년 南京 郭家山 M13에서 유리잔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남색, 무색투명, 녹색 등의 색조를 띤 유리제품으로 완의 형태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의 연대 東晉晚期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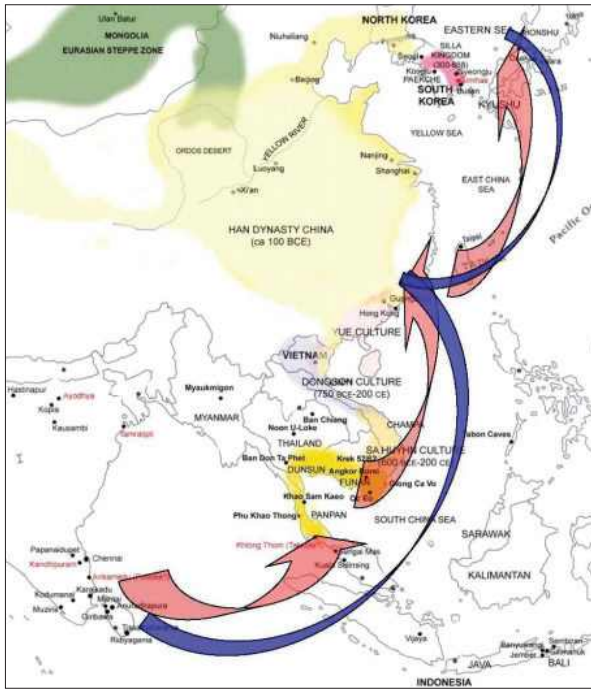
[그림 13] 江蘇省 句容 劉宋墓 출토 유리완(王志高, 2011)

1984년 江蘇省 句容 春城 劉宋元嘉十六年墓에서 유리완 1점이 출토되었는데 Cutting기법을 사용해 菱形紋을 기표면에 표현하였다. 고분의 연대는 元嘉十六年(439년)이 하장연대로 판단된다.

이들 유리기들은 사산페르시아계 글래스와 로만계 글래스로 대별되는데 南朝시기 수입된 유리 중 그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로만계 유리기이다. 그러나 일부 고분에서 출토된 로만계 유리기 중에는 사산페르시아계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양기법을 보이고 있어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림 14] 이란 출토 사산페르시아 유리기(필자 촬영)



[그림 15] 海上silkroad를 통한 古代 東亞細亞 琉璃製品의 交流
(James W. Lankton, 2010, 『Silk Road Glass in Korea: Archaeology and Scientific Analysis』에서 전재)

②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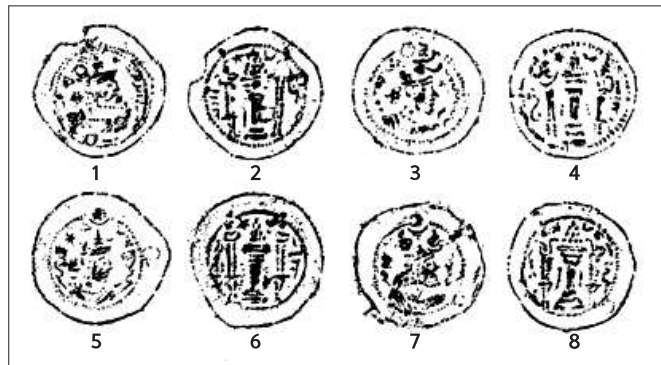
中國 경내 출토 사산페르시아 화폐의 대다수는 高昌, 투루판, 兩京(洛陽, 西安)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南朝지역에서 출토된 사산화폐는 광둥지역의 南朝 고분에서 출토된 24점과 남경에서 출토된 1점이 학계에 보고된바 있다¹⁵⁾. 광둥지역에서 출토된 사산 화폐의

15) 孫莉, 2004, 「薩珊銀幣在中國的分布及其功能」, 『考古學報』1期. 邵磊, 2004, 「南京出土薩珊卑路斯銀幣考略」, 『冶山存稿』, 鳳凰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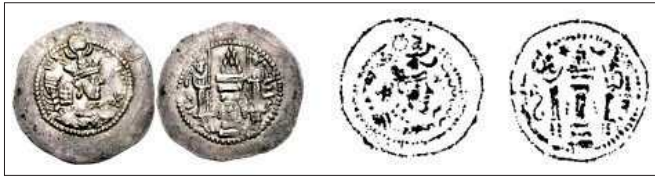
교류경로는 페르시아灣 연안에서 해상루트를 통해 광둥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경에서 출토된 사산왕조 피루즈(Piruz) 왕 재위기간의 은제 동전은 현재까지 가장 東端에서 발견된 사산왕조의 화폐이다. 관련문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당시 南朝의 수도인 건강성에서는 동남아 일대의 국가들의 상단 및 사절이 往來하거나 상주하였으며 남방정권의 중심지로서 대외교류의 가장 유력한 창구였던 것이 이러한 사산왕조 화폐의 발견으로 實證되고 있다.

[표 5] 南朝고분 출토 사산페르시아 화폐

기년	출토지	출토화폐 및 출토상황	자료출전
497년	廣東英德南齊墓	Piruz A형; Piruz B형, 주사목합내부	『考古』61.3
5세기말	廣東曲江南華寺墓	Piruz	『考古』83.7
5세기말	廣東遂溪南朝窖藏	Shapur III세(383-388); Yazdgerd II (438-457) Piruz A형; Piruz B형, 有蓋罐내부, 동전은 모두 천공되어 있음	『考古』86.3
6세기초	南京東八府塘國稅大廈	Piruz C형, 梁의 鐵五銖錢과 공반 출토	『中國錢幣』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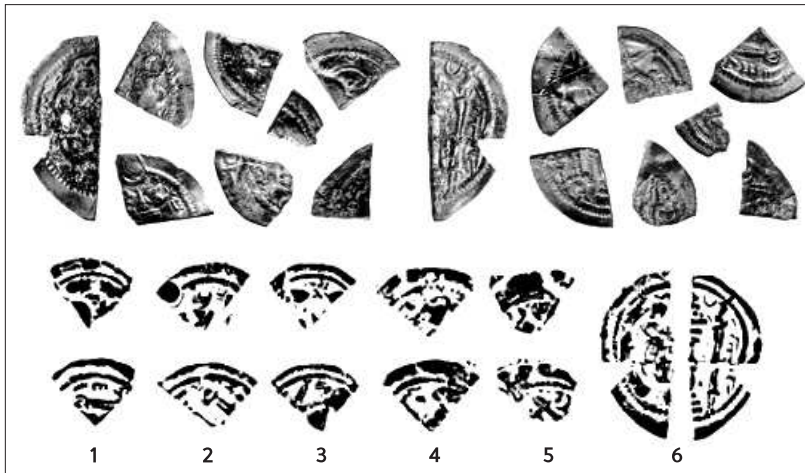
[그림 16] 廣東 遂溪 南朝 窖藏 출토 사산페르시아 화폐: Shapur III: 1·2 / Yazdegerd II: 3·4 / Peroz A형: 5·6 / Peroz B형: 7·8



[그림 17] 사산페르시아 Yazdegerd II 은화 및 中國 광둥 출토 수계 南朝묘 출토 Yazdegerd II 화폐



[그림 18] 사산페르시아 Peroz 시기 화폐 및 廣東 英德 南齊墓 출토 Peroz 시기 화폐



[그림 19] 廣東 曲江 南華寺 南朝墓 출토 Peroze 사산 화폐



[그림 20] 南京 東八府塘 國稅大廈 南朝窖藏출토 Peroz 銀幣

齊·梁時期 도성인 建康城에는 동남아 지역의 崑崙奴, 胡伎 및 서역 諸國의 官員도 상당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南齊書』 卷三十一列傳第十二: “昇明初,景真於南潤寺捨身齋, 有元徽紫皮袴楚A餘物稱是. 於樂遊設會, 伎人皆著御衣. 又度絲錦與崑崙簪鬘f, 輒使傳令防送過南州津.”

南京東八府塘國稅大廈 南朝窖藏 에서는 사산화폐와 함께 대량의 梁 鐵五銖 및 금은기도 공반되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화폐들의 퇴장연대에 대한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梁武帝 말년 侯景의 반란으로 사회·경제가 피폐해지고 민간의 不法鑄幣가 만연됨에 따라 梁 普通四年(523년)부터 鑄行되던 鐵五銖가 통화기능을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 이러한 五銖錢의 퇴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asan朝와 양의 通交 시점과도 거의 부합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南史』卷七十九·列傳第六十九·波斯國: “波斯國,國東與滑國西及南俱與娑羅門國北與泛慄國接. 梁中大通二年(530年), 始通江左, 遣使獻佛牙.

이러한 사산페르시아의 화폐가 中國 장강 이남 지역의 중요 항구인 廣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것은 당시 기원 500년 경 전후의 국제정세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마침 이 시기는 에프탈의 중앙아시아 장악으로 사산페르시아의 전통적 무역로가 차단 당하면서 동남 해안을 통한 해상 무역로가 조성되었던 시점이다. 사산페르시아는 인도 해안을 거쳐 다시 남동아시아의 해상루트를 통해 中國남부의 광둥 혹은 현재의 베트남 내륙을 거쳐 中國으로 내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표 6] 사산페르시아의 왕과 은화 LIV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Figure made by yunjae, cho)

ruler	Thumbnail of coin	note
Ardashir I (224-241)		LIV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Shapur I (241-272)		LIV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Hormizd I (272-273)		LIV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Bahram I (273-276)		LIV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ruler	Thumbnail of coin	note
Bahram II (276–293)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Bahram III (293, only four months)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Narseh (293–302)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Hormizd II (302–309)		Obv: Corrupt Greek legend with name of Hormizd II. Characteristic lion head-dress of Hormizd II. Swastika between feet, Brahmi monogram to right, Rev: Shiva with bull.
Shapur II (309–379)		
Ardashir II (379–383)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Shapur III (383–388)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Bahram IV (388–399)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Yazdegerd I (399–420)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Bahram V (421–438)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Yazdegerd II (438–457)		LIM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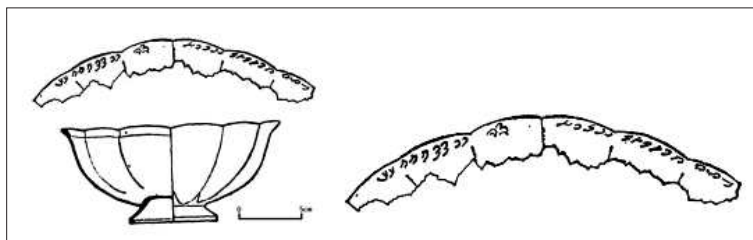
중국 남조와 서역의 대외교류

ruler	Thumbnail of coin	note
Hormizd III (457-459)		
Peroz I (457-484)		LM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Balash (484-488)		LM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Kavadh I (488-531)		LM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Djamasp (496-498)		LMIUS Articles on Ancient History
Khosrau I (531-579)		
Hormizd IV (579-590)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Bahram Chobin (590-591)		
Khosrau II (591-628)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Kavadh II (628)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Ardashir III (628-630)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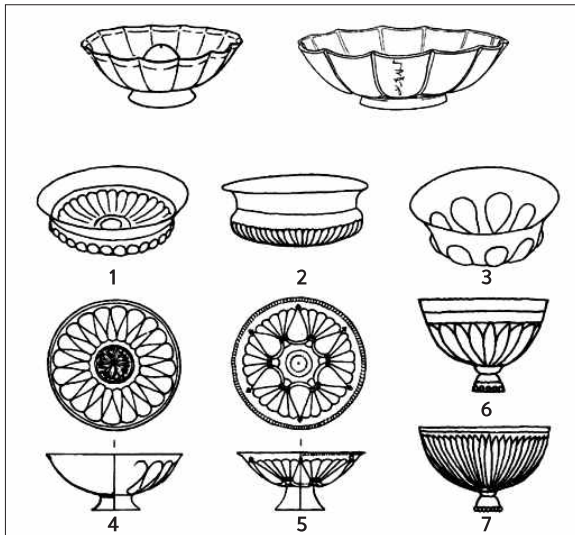
ruler	Thumbnail of coin	note
Shahrbaraz (630)		
Borandukht (630-631)		empress
Azarmidokht (631-?)		empress
Hormizd VI (631-632)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Yazdgerd III (632-651)		Christensen, A. 1965: "Sassanid Persia".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ume XII: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 193-324).

③ 金銀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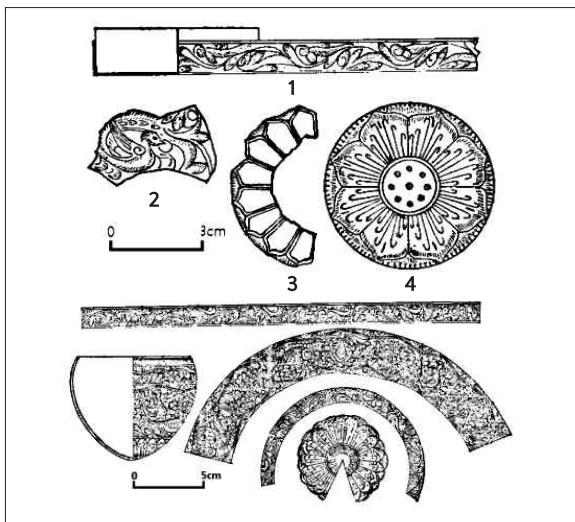
南朝시기 서역계통의 金銀器는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모두 古墳 혹은 교장(窖藏)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출토 금은기의 경우 기물의 문양 및 명문(Persia語) 등으로 보아 확연한 Sasan 페르시아의 문화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北朝지역의 金銀器는 그 수량에 있어



[그림 21] 廣東 遂鵝 南朝 窖藏 출토 페르시아어 銘文銀碗



[그림 22] 발칸반도, 소그드 지역 출토 금은기:
1·2·3-발칸반도 출토 은기, 4·5-소그드 지역 출토 은기, 6·7-소그드벽화에 묘사된 은완



[그림 23] 廣東 遂鵝 南朝 窖藏 출토 서역계 금은기

南朝지역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금은기의 생산이 단지 사산페르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발칸반도 및 주변지역에서도 생산되어 中國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南朝의 주요 訴求品目은 琉璃容器에 더욱 눈길을 돌린 것으로 생각된다.

④ 고분 출토품

고분 출토품 중 일부 기물들은 내지의 전통적 문화요소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외래요소를 표출하고 있다. 육조고분에서 출토된 도용 중 西域系 인물상은 당시 강남지역 및 건강성에 서역 인사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¹⁶⁾. 문헌기록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胡人俑의 출토는 南朝와 서역의 교류를 더 욱 구체화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진시기에 비해 南朝시기에는 胡人俑의 수량이 격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역시 서역과의 交涉이 있어 前代보다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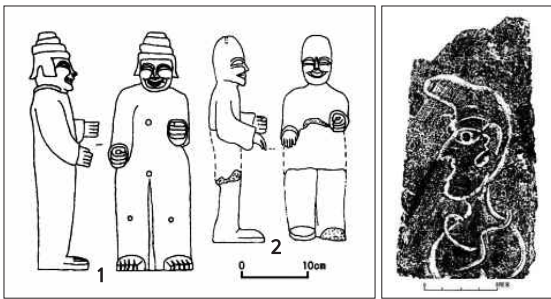
南朝시기의 대부분 전실묘는 화상전을 이용해 내부 장식을 하고 있다. 화상전의 소재는 佛教, 出行, 故事, 草紋, 人物, 神獸 등 다양하다. 이 중 花瓶紋樣은 페르시아지역의 전통문양으로 南朝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장강중류지역인 襄樊市에서 발견된 南北朝시기 전실묘에서는 날개가 달린 천사의 형태를 한 동제장식이 출토되면서 西域系 문화가 이 지역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확보되었다.

2008년 湖北省 襄樊市에서 도로시공 중 발견된 魏晉南北朝 塋室墓에서는 매우 독특한 유물이 한 점 검출되었다. 날개가 달린 천사

16) 南京市博物館, 1998, 「江蘇南京市富貴山六朝墓地發掘簡報」, 『考古』8期.



[그림 24] 南朝 塋室墓 內部 粧飾 花紋磚: 蓮花文과 瓶花文



[그림 25] 南京市 富貴山 六朝墓M2 출토 胡俑, 南京 鐵心橋 王家山 東晉墓 출토 胡人像



[그림 26] 梁職貢圖의 페르시아 및 에프탈(滑國) 사신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모양의 동제 羽人像으로 남방지역 고분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기물이다. 그 형태가 밀란사원의 천사도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인물상은 주로 동로마 혹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양식으로 서역 문화적 요소로 파악되며 밀란 불사유적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으로 간다라양식의 동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27] 湖北省 襄樊市 魏晉南北朝 磚室墓 및 出土 銅製 羽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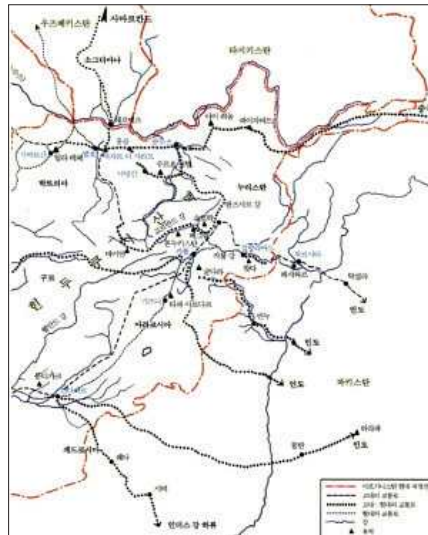
[그림 28] 湖北省 襄樊市 魏晉南北朝 磚室墓 및 出土 銅製 羽人像

고대 中國에서 우인형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고 있는데 商周時期 고분 출토품인 玉製羽人¹⁷⁾은 현재까지 최고의 羽人形象으로 알려져 있다. 湖北省 襄樊市 魏晉南北朝 塋室墓 出土 銅製 羽人像은 이 시기 고분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사례로써 그 배경이 주목된다. 출토 우인상은 서역의 불교벽화에서 보이는 천사도와 흡사한 모티프를 활용하였다. 특히 밀란사원의 天使圖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인물상은 주로 동로마 혹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양식으로 서역을 통해 漸入한 문화적 요소로 파악되며 밀란 불사유적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으로 간다라양식의 東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핫다 타파 슈투르사원의 불감 천정에 그려진 천사도, 사원의 조성은 2세기부터이며 7세기까지 존속하였다. 불감의 조성연대는 2~4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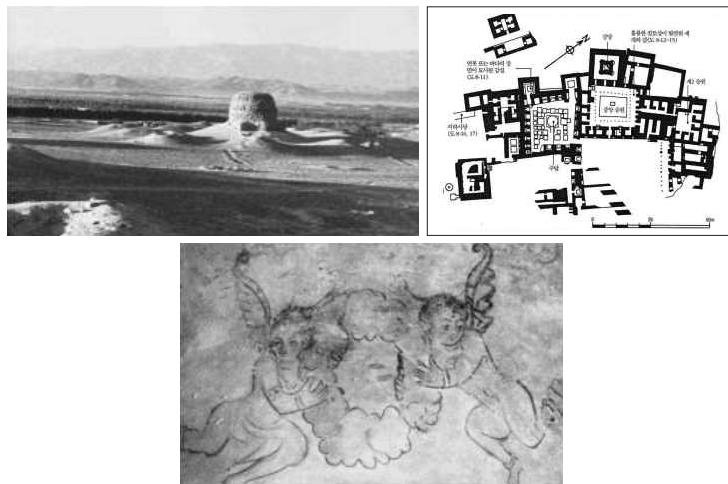


[그림 29] 湖北省 襄樊市 魏晉南北朝 塋室墓 出土 銅製 羽人像

17) 孫迎春, 2009, 「曆代羽人與古代玉雕」『古玉收藏與研討』第一期.



[그림 30] 간다라 미술의 발상지 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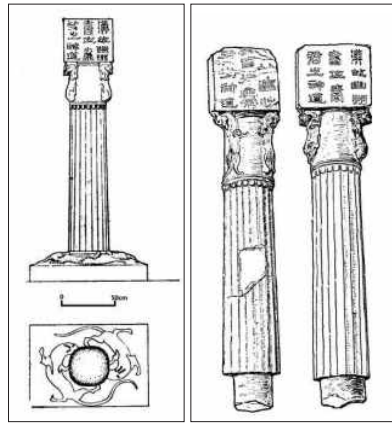


[그림 31] 아프가니스탄 핫다 타파 슈투르(Hadda Tapa Shuttur) 사원 불탑 사원 평면도 및 내부 천사도

2) 南朝의 건축양식에서 보이는 서역요소

① 陵墓石刻

南朝의 능묘제도 중 매우 특징적인 것은 신도의 좌우에 배열된 석각들인데 이는 魏晉南北朝 묘제에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신도의 좌우에는 石獸, 石柱, 石碑 등의 순으로 石刻物을 배열하는데 이 중 石柱와 石獸의 형태가 매우 특이한데, 이는 漢代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漢 이전 이러한 양식의 석조물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아마도 한과 로마 혹은 페르시아 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유입된 문화적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¹⁸⁾. 南朝시기 陵墓의 神道 양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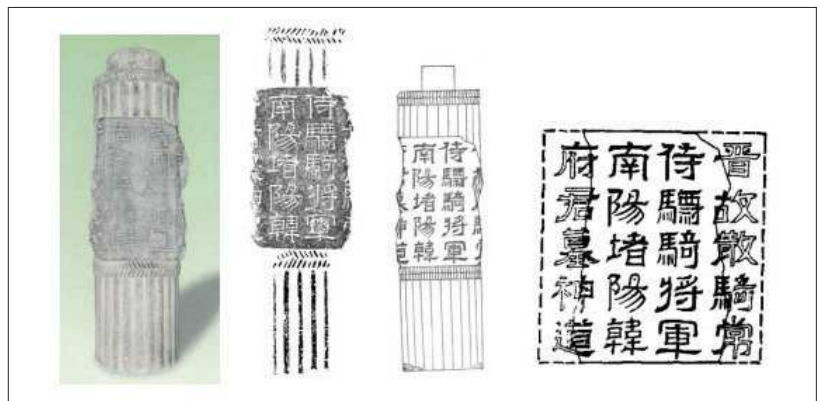


[그림 32] 湖北省 襄樊市 魏晉南北朝 磚室墓 및 出土 銅製 羽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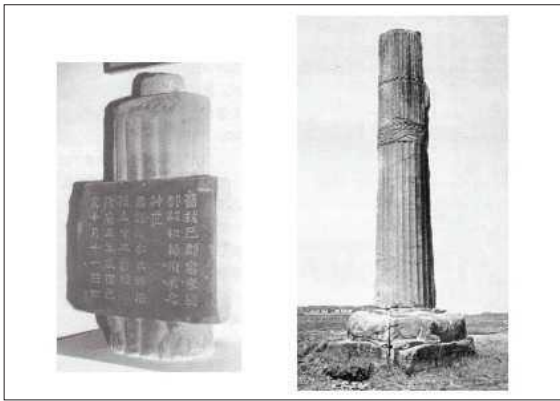
18) 傅熹年, 2001, 『中國古代建築史-三國, 兩晉, 南北朝, 隋唐, 五代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세워진 석조물은 능묘의 표식 역할을 하며 각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석조물의 배열은 神道碑, 石柱, 石獸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南朝 능묘의 주요 특징은 묘실 구조 외에도 지상에 배치된 石彫物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도 좌우에 배치되는 석각으로 석비, 석수, 석주 등은 다른 朝代의 능묘제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능묘의 지상에 석조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동한시기부터 확인되고 있다. 石柱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中國학자들에 의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나 있다. 기본적으로 석주의 원형은 서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이란지역인 파르시 지역에서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양식의 석주전통이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케메네스왕조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의 건축양식에서 대형 석주가 확인된다. 페르세폴리스의 조영 기간은 약 B.C.515~330년에 이른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Shapur궁에서도 석주가 보이고 있는데, 궁의 완성은 Shapur1세의 죽음(272년) 이전 혹은 조금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림 33] 晉故散騎常侍驃騎將軍南陽堵陽韓府君墓神道石柱 (元康九年 추정, 299년)



[그림 34] 東晉 楊陽墓 神道石柱 隆安三年(399년), 梁 文帝 蕭順 建陵 神道 石柱



[그림 35] 南朝 능묘 신도석각 배치상황

“漢故幽州書佐秦君之神道” 石柱는 中國에서 발견된 신도석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로서 이전시기부터 석주의 전통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漢代 이전 中國에서 이러한 형태의 石柱 전통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문화의 외부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中國과 페르시아, 북인도 지역의 교류와 교역을 감안한다면 유입의 경로가 이 지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中國 내부에서

는 모제의 일부분으로 변용된 것이 특이하다.

코린트(Corinth) 건축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헬레니즘문화의 東漸은 중앙아시아의 腹地인 간다라 지역에 1차 파급되며 이후 간다라의 건축 및 조각을 대표양식으로 하는 간다라 양식의 형성이 출현하고 다시 불교미술의 번안을 통해 中國내지로 유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적 문화요소가 中國내지의 상장문화 혹은 종교, 거주 문화 등과 정합되어 다소 이질적인 域外の 色彩를 강하게 湧出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 36] 아케메네스왕조의 페르세폴리스 콜럼, 사푸르(shapur)궁의 석주(필자촬영)

② 南朝 陵墓 石刻紋樣과 西域宗教

南朝 능묘의 석비에 서역의 주요 신앙인 祆教(Zoroaster교)의 상징적인 문양인 불의 제단이 형상화되어 종교의 유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梁의 臨川靖惠王 蕭宏의 능묘 신도석비의 碑額과 측면에 祆教와 관련된 문양이 확인되고 있다. 즉 石碑에는 中國의 전통적

인 문양과는 완전히 그 계통을 달리하는 매우 이질적인 종교적 도안이 새겨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蕭宏은 梁 太祖의 第六子로서 『梁書』에 기록이 전한다. (普通七年, 526년)



[그림 37] 梁臨川靖惠王蕭宏墓 石碑와 祆教(Zoroaster교)의 불의 제단 문양



[그림 38] 北周 同州 地域 sabao(소그드유민들의 수장) 安伽墓와 祆教(Zoroaster교)의 불의 제단 문양

3) 南朝의 불교문화에서 보이는 서역요소

南朝시기의 불교문화는 이미 북위의 수준을 능가하여 심원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梁代의 불교는 황제는 물론 상층부 인물과 지식인들의 사유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량의 불교유적과 유물이 산재하고 있다. 이 중 四川地域의 불교유적 및 유물이 주목할 만하다. 사천지역 南朝시기 불교유적과 造像들은 기년유물이 비교적 많고 시대적 특징이 명확해 불교문화의 발전양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실물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南朝 중기 불사인 萬佛寺에서 출토된 阿育王像은 간다라양식이 비교적 강하게 반영된 불상으로 서역불교의 漸入을 언급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이다. 이 중 四川 成都 西安路에서 출토된 梁太清五年(551년) 阿育王像¹⁹⁾은 조상의 髮式, 顔面에 표현된 胡須 등 外來系 요소가 확인되는 불교조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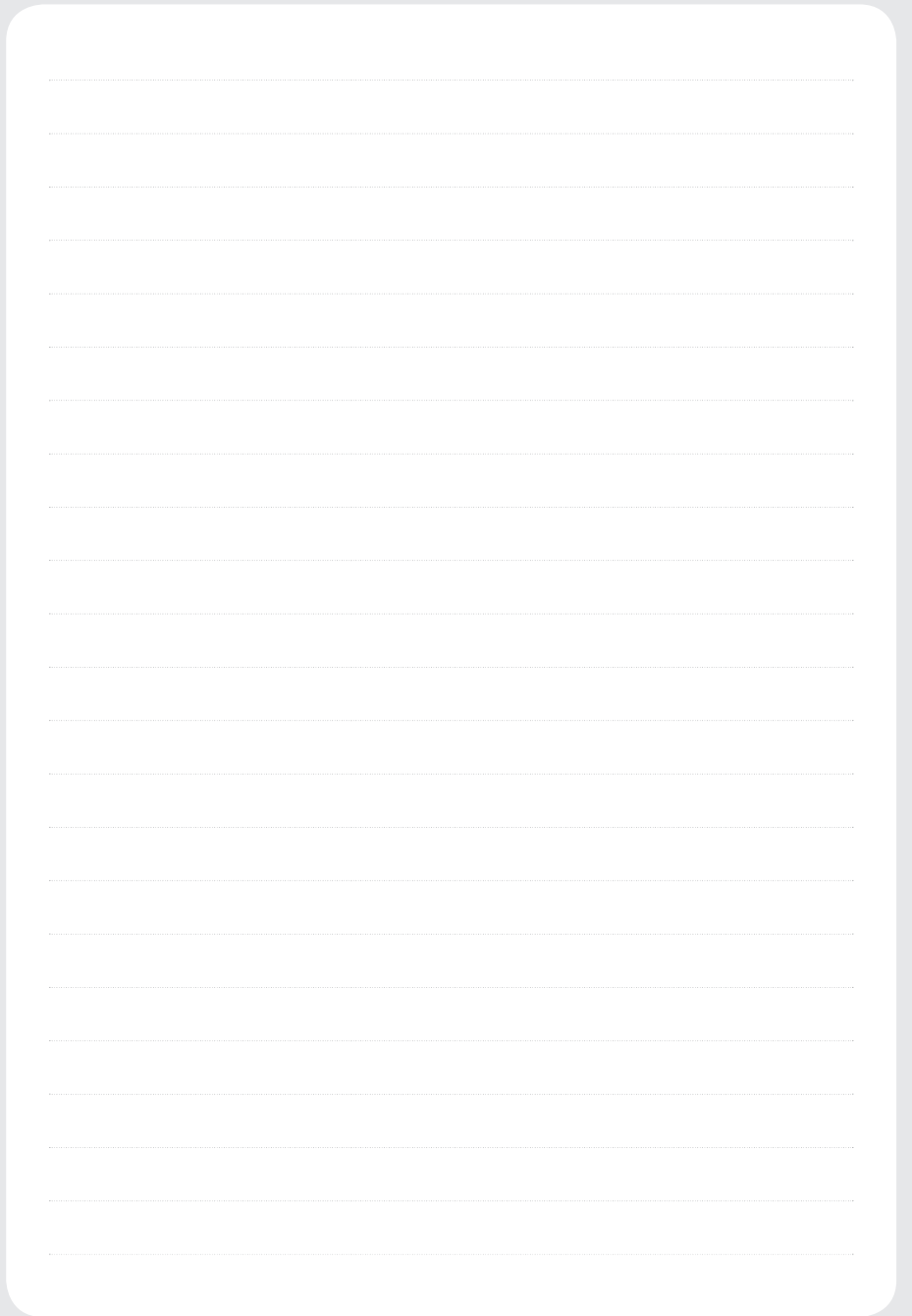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19) 林樹中, 2004, 「宗教造像藝術」, 『六朝藝術』, 南京出版社.

맺음말

서역과 南朝의 접촉은 지금까지 확보된 고고자료에서 상당부분 입증되고 있다. 偏安政權이라는 지리·정치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송, 제, 양, 진 등의 南朝정권은 대외교류에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서역과의 交渉은 현실적인 교통 루트를 취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층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南朝의 정치적 성격과 입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동적 交渉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산왕조를 비롯한 서역 諸政權은 南朝의 외교적 중량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北朝와는 별개로 외교적인 실리를 담보하기 위한 등거리 외교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진일보된 담론은 결국 당시 동서문명의 네트워크이라는 확장된 스케일을 들고 관찰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한반도와 서역의 交渉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효한 예비 작업이 될 것이다.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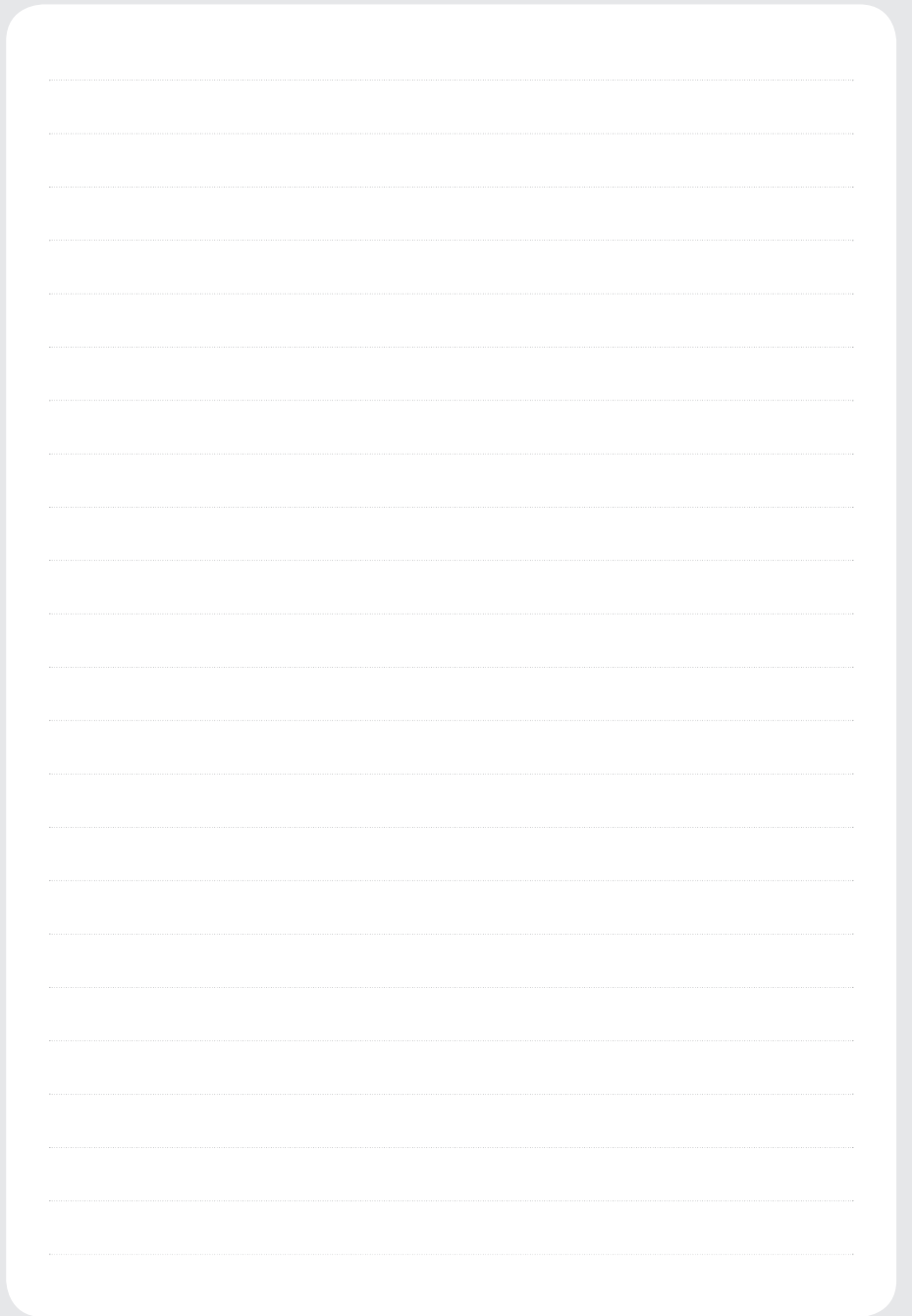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rectangle is positioned on a dark grey background.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_4

이슬람 제국 형성의
배경과 해상 진출

정규영

조선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아랍어전공 교수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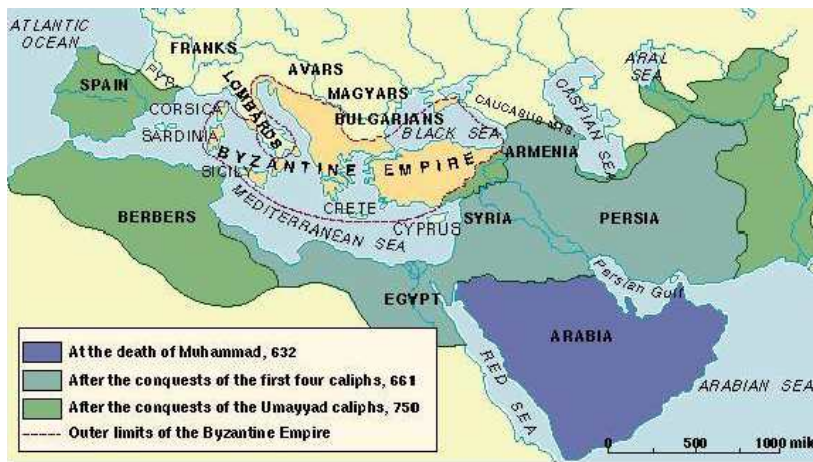
이슬람의 정복전쟁(아랍어: فتوحات إسلامية, al-Futūḥāt al-Islāmiyya)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7세기 초에 시작한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610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은 후부터 23년 동안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수립했다. 이후 정복전쟁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슬람 신정국가를 수립한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는 사망했으나 뒤를 이은 우마이야 제국, 압바스 제국 동안에도 이슬람의 정복 전쟁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이슬람 제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와 피레네산맥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레타 섬, 시칠리아, 키프로스 등 지중해의 여러 도서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1737~1794; 영국의 역사가)은 그의 책 “로마 제국 쇠망사”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우마이야 칼리파국의 정복 활동에 따라 아랍 제국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200일에 걸쳐 여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들은 타타르와 인도의 영토에서 대서양 해안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슬람의 정복 활동 결과, 페르시아의 사산 제국은 멸망했고 비잔틴 제국 역시 영토의 대부분 상실했다. 불과 100년 만에 방대한 영토 위에 이슬람 제국이 수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했던 비잔틴제국

과 페르시아제국이 수십 년간 소모적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짐에 따라, 제국 내 주민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큰 이유이다. 이슬람 군이 공격해왔을 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던 사산 제국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시리아의 유대인과 단성설자들은 침략군에 맞서 싸우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환영하고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 이슬람군의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 사상적 응집력, 민첩한 군사적 기동성도 제국의 확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8세기 중반 이슬람 제국의 영토는 약 1,300만 km²에 달했다.



[그림 1] 아랍 이슬람 제국의 형성 750년

1. 이슬람 정복 전쟁의 배경

1-1.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군사적 쇠퇴

이슬람이 출현하기 직전 서양을 대표하는 비잔틴 제국과 동양을 대표하는 페르시아 제국(사산조 페르시아) 두 거대 제국은 300년 넘게 소모적인 싸움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 제국의 경제 상황은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졌고 정치는 매우 혼란했으며 민심은 떠나간 상태였다. 오랜 소모전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 경제적 피폐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이 혼란을 끝낼 새로운 세력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오랜 전쟁 중에서 가장 최악은 602-628년 사이의 비잔틴-사산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비잔틴 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다. 비잔틴 제국은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정상태는 고갈되어 미래에 있을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다.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이 쇠락한 결과 힘의 균형은 이슬람 제국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600년경 지역의 두 강대국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나 600-750년까지 이슬람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걸쳐 유일한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이 기간 중 643년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제국에 멸망했고 비잔틴 제국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비잔틴 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슬람 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긴 했으나 7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강력한 제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600-750년 사이 비잔틴 제국은 대부분의 영토(북아프리카, 시리아, 이집트 포함)를 이슬람 제국에 뺏겼다.

연도	사건
293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됨
324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서로마를 재통합함.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이전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칭함
476	서로마 제국이 멸망함.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칭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지배함
518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황제 등극. 이때부터 비잔틴제국의 황금기가 시작됨.
532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동부 국경을 지키기 위해 사산조 페르시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함
533-548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북아프리카의 부족들에 대한 정복과 전쟁을 지속함. 비잔틴 제국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짐.
537	콘스탄티노폴리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건설됨 - 비잔틴 제국의 절정기
541-549	“유스티니아누스의 흑사병” 창궐 - 전염병이 제국 전체에 만연되어 인구의 40%가 사망함.
546-56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부의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임. 50년 평화조약을 체결함
565	게르만 용병들이 이탈리아 침공 - 6세기 말 이탈리아의 1/3만 비잔틴 영토로 남음
626	사산조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함.
626-628	헤라클리우스 황제 치하의 비잔틴 군대가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사산조 페르시아로부터 탈환함.
634	정통 칼리프 군대가 비잔틴 영토인 시리아를 침공함.
636	정통 칼리프 군대가 시리아 지방의 야르묵 전투에서 비잔틴에 승리를 거둠.
640	정통 칼리프 군대가 비잔틴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함
642	정통 칼리프 군대가 비잔틴 이집트를 정복함
643	사산조 페르시아가 정통칼리프 군대에 함락됨
644-656	정통 칼리프 군대가 비잔틴 제국의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을 정복함
674-678	우마이야 왕조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함. 실패하고 퇴각함. 하지만 식량 부족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인구는 50만명에서 7만명으로 감소함.

1-2. 흑사병(Black Death: 541-549)의 창궐

앞친데 덮친 격으로 54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 전파되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심한 날에는 하루 1만명이 사망할 정도였다. “유스티니아누스의 흑사병”로 알려진 이 재앙으로 비잔틴 제국 내 대부분의 농부와 군사들이 죽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재앙으로 유럽 인구의 60%가 사망했고, 수도 콘스탄티노플 시민의 40%가 죽었다. 페르시아도 처지는 비슷했다. 페르시아 인구의 25%가 사라졌고 사망자 가운데는 페르시아 왕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이슬람의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이 사막이라 흑사병을 퍼트리는 곰취가 서식하지 못했고 대도시 밀집형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달리 주민 대부분이 사막에 산재했으며 유목민이 많았다. 이는 페스트를 피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

1-3. 포용정책과 조세정책

당시 이슬람세력은 인구가 작아 그 넓은 정복지를 직접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새 이슬람제국은 그 이전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다. 즉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토착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간접통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관용정책이었다. 세금만 내면 그 어떤 종교도 허용했다. 아랍 제국은 피정복민을 보호하는 대신 세금이라는 실리를 취했다. 특히 이슬람의 조세정책은 피정복민으로부터 환영받았다. 25%의 토

지세만 내면 누구든 땅을 소유할 수 있었고 농사를 짓고 경작물도 가질 수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10%의 인두세만 내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10% 인두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다른 종교들의 거부감도 없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죽거나 노예가 되고, 재산을 몰수 당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기득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조치였다. 유럽의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던 콥틱 기독교, 네스로리 우파, 단성설자, 아랍에 살던 유대교도들은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자 이들을 해방군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싸우지도 않고 도시 통째로 투항하거나 이슬람군에 호응하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한 비결이다.

1-4. 부의 축적과 강력한 군대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제국의 장기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로(페르시아-이라크-시리아-요르단-지중해)가 차단되자 대상들은 새로운 무역루트를 찾아야만 했다. 이 때 새로운 무역로로 떠오른 곳이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홍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루트였으며 이 새 무역로의 중심은 메카였다. 예언자 무함마드 역시 메카 출신의 상인이었다. 아랍인들의 정복전쟁의 토대를 이룬 것은 중개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부의 축적이었다.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제국은 용병제도를 활용하여 두 제국의 국경

을 지키는 군인들은 아랍 용병들이었다. 아랍 용병들은 유목이나 농사보다 용병 수입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용병입대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슬람 개종 후 이들 아랍 용병들은 비잔틴과 페르시아로 칼끝을 돌려 정복을 이끈 최고의 전사들이 되었다.

2. 이슬람 제국

2-1. 우마이야 왕조 661-750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 제국의 거의 2배 영토에 달했다.
- 압바스 제국에 망한 후 수도를 코르도바로 정하고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했다.
- 로마가 제국 건설에 약 900년 걸린 데 비해 우마이야 제국은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2-2. 압바스 제국 750-1258

압바스 제국에 이르러 아랍 무슬림들은 그리스 학문을 연구하고 자연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화학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학문 중심지는 바그다드와 코르도바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대의 그리스 학문이 연구되었고 르네상스의 유럽에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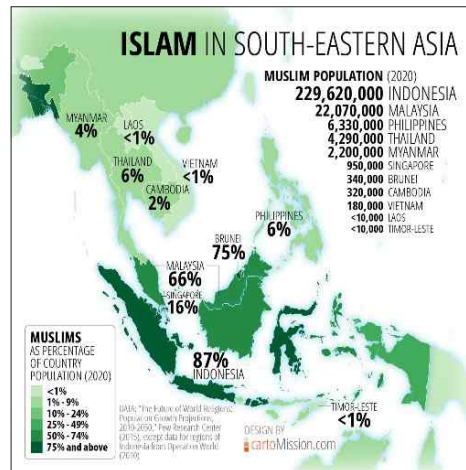
2-3. 이슬람의 해상 진출과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말레이 군도의 이슬람은 아랍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평화적으로 전파했다. 이슬람은 674년 말레이 반도 해변 지방에 소개된 이래 12세기에는 아랍 상인과 타밀 인도 상인들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도입되었다. 12세기 술탄 Mudzafar Shah¹는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무역항 주민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슬람은 기존의 신앙을 없애기 보다는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15-16세기까지 이슬람은 말레이 주민 대다수가 믿는 종교로 발전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국민의 50.4%를 차지하는 말레이인은 거의 무슬림이다. 말레이 무슬림의 70% 정도는 머리스카프를 착용한다.



[그림 2] 현대 51개 이슬람 국가



[그림 3]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분포



[그림 4]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여성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rectangle is positioned on a dark grey background.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 _ 5

동해를 둘러싼
선사~고대인의 문화교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머리말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인 연해주는 늘 한국사의 영역이었다. 가장 가깝게는 독립운동의 기지 중에 한 곳이었다. 연해주는 북경조약(1860년)으로 이미 러시아제국의 영토였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주로 살던 사람들은 한국인과 중국인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국인마을 20개소 7000명, 중국인은 90,0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에 이는 러시아인 보다 더 많은 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블라디보스톡의 거리 이름인데, 지금은 개명되었지만 한국거리, 중국거리, 일본거리 등이 있었다. 또한 연해주의 중국식 혹은 한국식 지명들을 1970년대가 되어서야 모두 일괄해서 러시아식으로 바꾸었는데, 예를 들면 핫산지역의 강 이름 중에 신석기시대 대표유적인 자이사노프카 1이 위치한 글라드카야 강은 개명 이전에는 삼거리였다. 외에도 고개, 거리 등은 특히 한국식 이름이 많았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세종 때 여진의 약탈을 막기 위해 녹둔도를 개척하였는데 그 위치가 현재 두만강의 북쪽, 러시아 핫산의 가장 남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 조약 이후, 고종 26년(1889년)에 이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지만 체결되지 못했다.

고려시대는 예종 3년에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지역에 9성을 지었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학을 연구하는 미하일 보로비요프는 역사기록에 근거하여 현재의 우스리스크시 근처의 유즈노-우스리스크 성과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성을 윤관 9성 중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공험진(公險鎭)으로 보았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고고학연구소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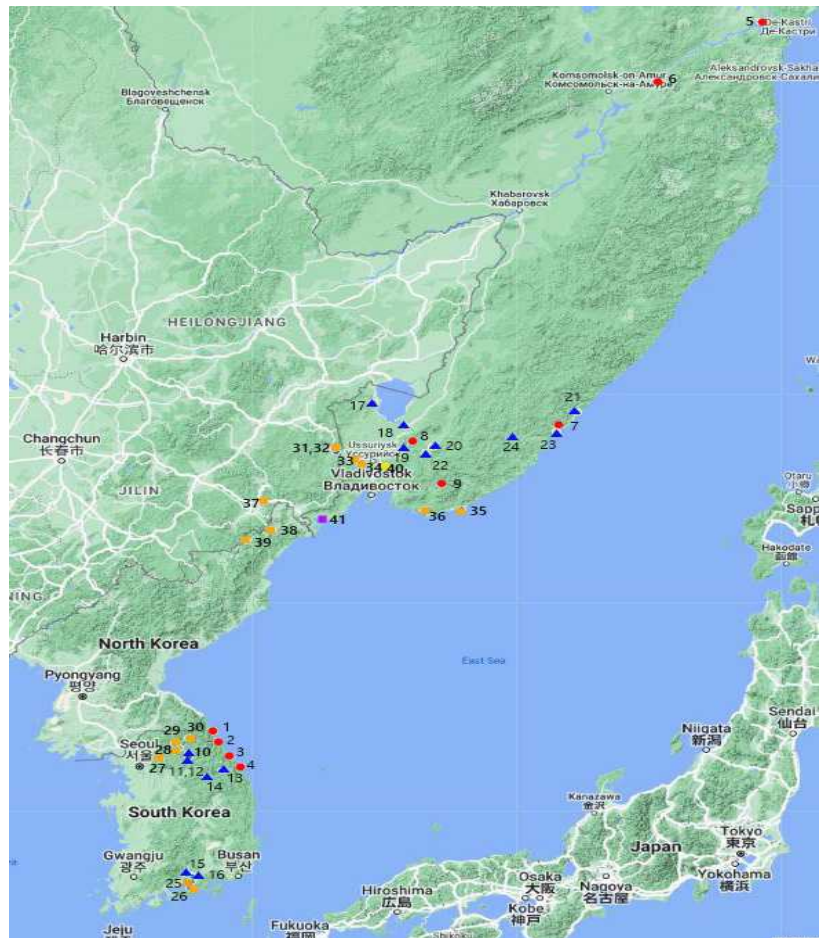
성곽은 매해 발굴조사 하고 있는데, 여진성으로 알려져 있다. 고고학적 정황과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연해주가 여진족의 주요 근거지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윤관의 9성 중 일부가 존재했을 것이다.

남북국시대로 남쪽에 통일신라가 위치했을 때, 북쪽에 발해가 현재의 국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걸쳐서 있었다. 그 중에서 한국이 공동연구 할 수 있는 지역은 러시아로 크라스키노(鹽州城)성, 코크샤로프카 성터, 체르냐치노 무덤군 등은 한국과 공동조사가 이루어졌다. 발해에 대한 역사기록이 아주 미흡한 상황에서 고고학적 자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발해사의 역사 인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도 자신의 역사로 인식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의 관점차이가 심하다.

발해 이전에 알려진 정치체는 옥저와 읍루가 있다. 옥저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읍루는 폴체 문화일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물론 필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전체를 옥저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문화의 가장 마지막 기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도 동해와 대 산맥을 매개로 한 사람들은 이동했다는 것을 이번 강의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연구한 환동해문화권의 북부지역은 기원지로서의 검토가 아니라 같은 『문화권역』을 찾고 그 안에서 이동을 구체화 한 것이다(김재운 2021a¹⁾).

1) 이 책은 필자가 박사 졸업 후 12년간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이 저서에는 폴체, 말갈, 발해, 여진으로 이어지는 역사시대는 출판되지 못했다. 版社.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그림 1] 환동해문화권의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말갈, 발해 유적

1.문암리, 2.오산리, 3.망상동, 4. 교동, 5. 수추섬, 6.가사, 7. 초르투비이 보르타, 8. 세클라에보 7 유적, 9. 세르게예프카 1유적; 청동기시대, 10.천전리,11.철정리, 12.외삼포, 13. 천동리, 14. 아우라지, 15. 평거동, 16. 대평, 17.하린 유적, 18.시니가이 유적A, 19.레티호프카 게올로기체스카 야, 20. 쿠르쿨나야 돌리나, 21.베트로두이, 22. 아누치노-14, 23.루드나야 프리스틴 유적, 24. 수보로보-6 ;철기시대 25. 방자리, 26. 늑도, 27. 대성리, 28. 울문리, 29. 거례리, 30. 고대리, 31.단결(團結, Duanjie), 32.대성자(大成子) 유적, 33. 크로우노프카 1, 34.코르사코프스코예 2, 35. 페트로바 섬, 36. 블로치카 섬, 37. 묘포, 38.오동, 39. 범의구석, 40. 아우로프카 유적, 41. 크라스키노 유적

II. ‘해동성국’의 동해 이용

연해주의 핫산지구에 위치한 ‘크라스키노’성 유적은 발해가 동해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관청인 ‘염주성’이라는데 이견(異見)이 없다. 크라스키노 평지성은 여타 발해성과 구조가 유사한데, 성벽의 안과 밖에 돌을 쌓았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운 구조이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은 둘레가 1.2~1.3km정도이며, 동서남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동문이 포시에트 바다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그림 2)²⁾. 이 성은 바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유적을 약간 발굴하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차오르는 이유로 인해서 주로 지형상 가장 높은 지대인 북서쪽과 동문지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되고 있다. 그 곳에서 금당지, 탑지, 와실, 기와 가마터, 우물, 대형건물터, 도로유구, 온돌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지구 물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금당지의 동쪽에는 수 개의 초석건물지가 위치하는데, 행정건물지일 가능성이 크다. 초석건물들은 나머지와는 돌 기초 담장에 의해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구역에서는 쪽구들이 있는 지상건물지와 노지가 있는 수혈식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저장구덩이가 있는 마당, 쓰레기 구덩이 등이 조사되었다. 크라스키노 성안에서 동문지 주변에서 도로도 확인되었다. 자갈돌을 깐 것과 자갈을 쓰지 않고 굵은 자갈과 함께 토기편, 기와편, 동물뼈, 조개껍질 등을 섞어서 깐 것이다.

연해주의 발해 유적연구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유적의 시

2) 유적의 발굴은 1980년에 러시아과학원 극동역사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수차례 한국과 공동 발굴하였다. 필자도 2008~2010년에 조사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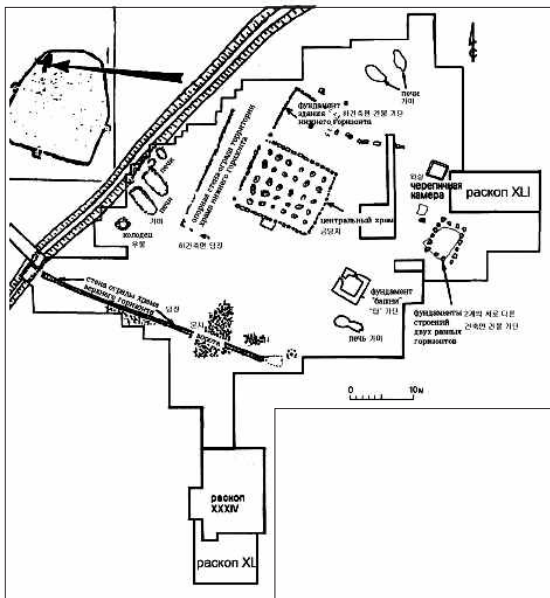
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특히 성은 후속시대에서 계속 사용되어 초축 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의 목탄에서 절대 연대를 추정하기 이전까지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 성의 연대를 8~10 세기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한리 공동발굴에서 주거구역에서 다섯 개의 문화층을 구분하였고, 제 3건축면의 주거지내에서 정요토기와 삼채 편들이 확인되어서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도 유적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가장 아래층에서는 목탄으로 측정된 절대연대³⁾가 고르게 나와서 7세기 중반~8세기 전반대로 여겨진다. 따라서 두 가지를 토대로 보아 8세기 초부터 이 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2011).

크라스키노 발해성에서 확인된 유물은 불상과 각종 기와 뿐 만 아니라 기와장 안에서는 고누판, 원숭이 조각상, 도자기, 고구려형 토기, 마차 부속 유물, 철제 무기류, 찰갑, 발해 청동경, 낙타상 등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뼈 중에 그 중 낙타뼈(동북아역사재단 2013)도 확인되었는데, 낙타상과 함께 발해의 대외교역이 중앙 아시아까지 뻗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유물로 생각된다.

유적에서는 곡물과 동물뼈 등 자연유물도 많이 확인되어서 크라스키노 발해성 사람들의 먹거리와 생업활동, 기후 등을 추정 할 있다. 이 연구성과는 중국, 북한의 발해연구에서는 그간 볼 수 없었던 분야로 발해인의 식생활과 생업활동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재운 2021b). 가장 흔한 것은 기장류이고, 밀과 보리도 많이 확인되었고, 강낭콩과 대두 등도 많이 확인되었다. 돼지, 개, 말,

3) 690, 640, 740, 680AD로 측정되었다.

소 등을 가축한 자료가 확보되었는데, 가장 흔한 것은 돼지이며, 개 뼈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사냥용으로 길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6개월 된 강아지 무덤이 확인되었다. 식생활에서 가축의 비율이 70%이상으로 판단되며, 야생식물과 사냥에서 얻어진 먹거리도 상당수 차지한다. 크라스키노 발해성에서는 고래를 포획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또한 크라스키노 발해성 뿐만 아니라 고르바트카 성, 마리아노프카 성, 아브리코스 주거 유적 등에서 현재는 이곳에서 서식하지 않는 아나다르(*Anadara inaequalvis*, *Anadara subcrenata*) 연체동물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현대와 비교해서 발해시기에 지금보다 따뜻한 기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코프, 켈만 2002).



[그림 2] 크라스키노 발해성과 그 부속유구(켈만 2011)

크라스키노 발해성(염주성)은 조공도, 영주도, 신라도, 일본도, 거란5도 중에서 일본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역사지리학자들이 발해교통에 관련된 중요한 성지성격을 고증하고, 교통로의 개요를 확인하였다(袁輝 1993). 가장 노선이 명확한 것은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이다.

일본도는 육로와 해로로 되어 있는데, 육로는 구국(중국 길림성 둔화)에서 거쳐 동쪽 안도현을 지나 토문을 거쳐 책성(중국 훈춘)까지 이르는 길은 신라도와 같은데, 상경성에서 출발해서, 구국~안도현을 거쳐 책성에서 두만강 하구 방향으로 가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길은 신라도, 책성에서 바다쪽으로 향한 길이 일본도의 육로로 주목받고 있다. 이때 출발지가 크라스키노 성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는 발해가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척된 교통로이다(윤재운 2011).

즉 크라스키노 발해성의 목적지는 신라 혹은 일본이며, 기원후 8~10세기에는 외교활동이라는 배경으로 동해를 이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재운 2017). 뒤에서 이야기 할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환동해문화권역의 목적이 남북국시대에 달라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III. 우리나라에 나타난 옥저, 음루, 말갈

발해 8~10세기 이전에는 고구려는 연해주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재지의 문화인 말갈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세기 말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발해가 있었던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11세기 까지 말갈 문화는 연해주 북쪽에 존재했다(김재운 2022c). 4세기 이전에는 폴체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를 영위한 사람들은 ‘읍루’라고 여겨진다. 또 읍루 이전에 있던 ‘옥저’인들이 남겨진 유적과 유물은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라고 명명했다. 옥저가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기원후 1세기 가량이지만(이현혜 2010),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기원전 5세기 가량부터 라즈돌라냐 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해주 해안가로 유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 부터이다(수보티나 2005, 김재운 2016)

1. 우리나라 초기 온돌은 어디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서 가장 특징 있는 것은 집안에 설치된 ‘쪽구들’이다. 쪽구들은 온돌의 초기 모습을 말한다. 방 전체를 데우지 않고 집의 한쪽 켠에만 돌 혹은 점토로 된 아궁이 및 배관시설이 이 문화의 유적에서 발견된다. 신기하게도 라즈돌라냐 강(중국어: 수분하)은 중국에서 발원해서 러시아로 흘러간다. 이 강의 지류에서 ‘단결’유적과 ‘크로우노프카 1’ 유적이 각각 조사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같은 문화의 유적이라는 것이 길림대학교의 임운 교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온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옥저 사람들이며, 그 이후의 읍루, 말갈, 발해 유적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중국 요서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후대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문화적 코드로 자리잡지 못했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옥저인들이 발명한 이후에 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온돌이 우리문화의 코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김재운 2022b).

옥저인이 발명한 온돌이 한반도 남쪽(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곳은 기원전 3세기 늑도 유적(그림 3-16,17)과 인접한 방지리 이고,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강 유역으로 기원후 2세기 유적인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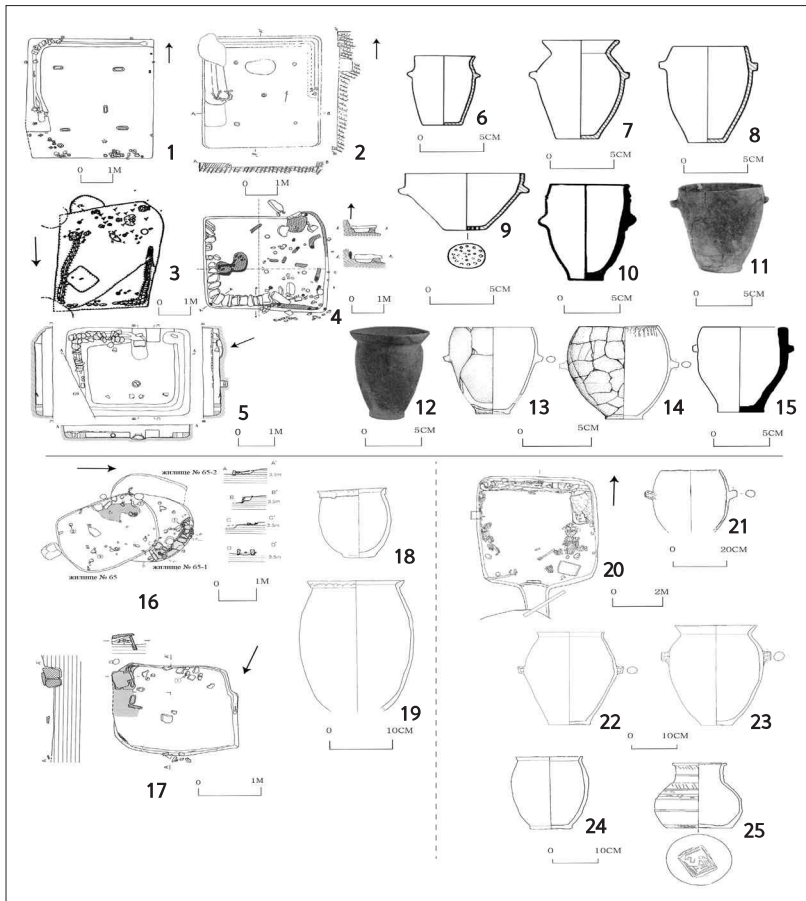
‘늑도’는 섬 전체가 유적이라고 할 만큼 유적이 산재하고 있으며, 출토 유물 및 유구 또한 국제적인 곳이었다. 반량전, 오수전, 한식동축과 동경, 낙랑계토기, 왜계토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 등이 나와서 국제인 항구로 알려졌다⁴⁾.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강 유역의 철정리, 울문리, 거례리 유적 등 기원전 2세기 유적에서 나온다. 늑도 유적에서는 60기 이상에서 발견되지만, 북한강 유적에서는 대성리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4기(43기 가운데), 철정리 1기(A지구 14기, C지구 5기 가운데), 울문리 1기(그림 3-20), 거례리 유적에서는 4기(12기 가운데), 고대리 유적에서는 7기(24기 가운데)에서 확인되었다. 쪽구들 평면형태가 ㄱ 자형 이고 아궁이와 고래의 축조재료는 대부분 석재이다(김재운 2022b).

북한의 청천강 유역에서도 남해안의 늑도 유적과 같은 시기에 확인되었다. 고조선의 후기 문화와 관련된 유적으로 세죽리 유적과 대평리 유적에서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고조선 후기 문화는 청천강 유역 뿐만 아니라 요동 무순 연화보 유적(세죽리-연화보 유형) 등에서도 확인되어 그 문화적 범위가 요동지역까지 퍼져 있었다. 고조선 후

4) 늑도와 관련된 국립진주박물관의 특별전이 2016년에 개최되었다.

기 문화가 옥저인과 관련성이 깊다는 사실은 청천강 쪽구들 외에도 축각식 동검, 반량전, 청동모 등으로도 알 수 있다(김재운 2022b).



[그림 3] 연해주(그림 3-1~15)와 우리나라 남부(그림 3-16~19), 중부지역(그림 3-20~25)의 쪽구들과 토기
 1: 단결 유적 하층1기 9호 주거지, 2: 단결 유적 하층2기 1호 주거지, 3·10 코르사코프스코예 2 유적, 4: 페트로바 섬 유적, 5: 모포 유적, 6-9: 단결 유적, 10-12: 크로우노프카 1 유적 1957년 발굴품, 13·14: 불로치가 유적, 15: 키예프카 유적, 16: 늑도 유적 65-1호 주거지, 17: 늑도 유적 나-64호, 18·19: 늑도 유적의 주거지 출토품, 20·22-25: 울문리 유적, 21: 철정리 유적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라즈돌라야 유역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대략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인데, 이 때에 연해주 해안가 뿐 만 아니라 청천강 유역까지 확산되었고, 늑도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여겨진다(김재운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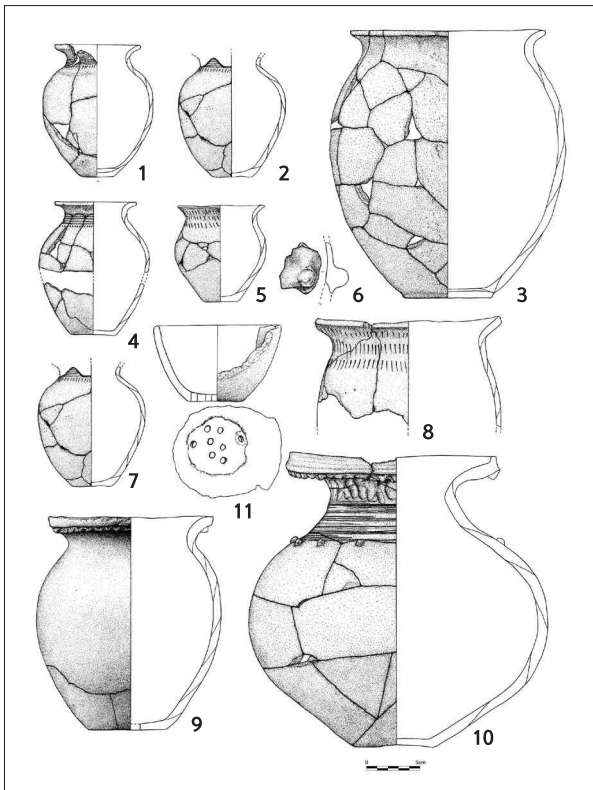
우리나라 북한강 일대에는 청천강 유역이나 늑도 보다는 늦은 시점인 기원후 2세기에 나오고, 유적에서도 쪽구들이 있는 유적과 없는 유적들 간에 유물구성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쪽구들을 옥저인이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북한강 유역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유물인 중도식 토기는 기원전 3~2세기부터 북한강 유역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은 북한강에 살던 사람들이 연해주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서 쪽구들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재운 2022b).

2. 중부지역의 읍루와 말갈 토기

연해주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는 폴체 문화로 이어지는데, 기록상에 나오는 ‘읍루’가 폴체문화를 사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끝나는 기원후 1세기 부터는 폴체문화로 볼 수 있지만, 폴체 문화의 상한에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크다⁵⁾. 말갈

5) 하지만 폴체문화는 연구자마다 연대 차이가 크다.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를 아우른 폴체문화의 편년은 기원전 7~6세기(데레비안코 1976), 기원전 6~4세기(홍형우 2008)부터 기원후 1~5세기까지이고, III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서, 연해주의 폴체문화는 III기이며, 기원후 1~5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콜로미예츠(2005)와 유은식(2018)은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폴체문화를 구분해서 편년했으나, 두 사람의 연대관 차이가 크다. 자신이 발굴한 연해주 북부의 클라조프카 유적과 남부 지역을 분리해서 기원전 3세기, 남부는 기원전후부터 3세기까지로 보았다(콜로미예츠 2005). 유은식(2018)은 연해주의 폴체문화를 I기는 기원후 3~4세기, II기는 기원후 4~5세기 말까지로 정리했다(김재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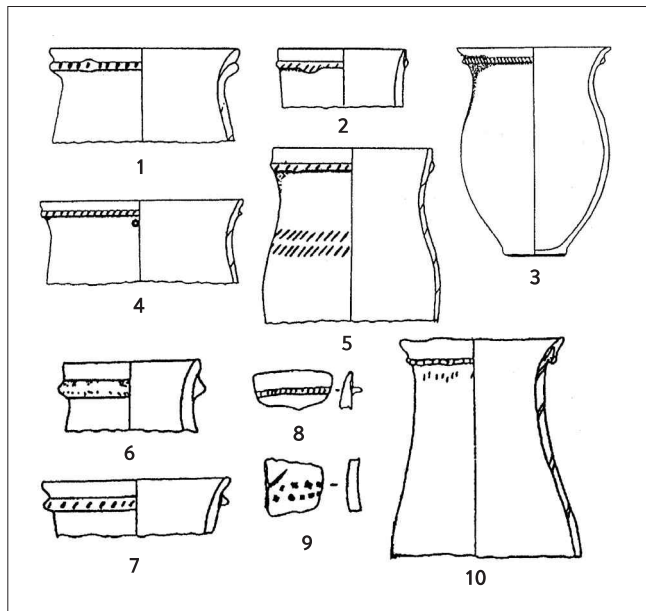
문화는 발해가 성립되기 이전인 기원후 4세기말부터, 발해시기, 발해 이후의 10~11세기까지 지속된다(피스카료바 2005).



[그림 4] 불로치카 유적 6호와 12호 주거지 출토품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인용, 김재윤 2022b 재인용)(피스카료바 2005).

강원지역 3~4세기 초당동 유적, 망상동 III유적, 송정지구 주택 유적, 청호동 유적 중에서는 일부에서 연해주의 폴체문화와 말갈문화의 토기가 나온다. 동 시간대의 중부지역 유적 가운데는 일부이지

만,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도 양 지역의 문화적 관련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견부 죽관문토기’라고 불리는데, 토기의 어깨부위에 둥근 문양이 찍히는 것이다. 특히 청호동 유적의 3호 주거지에서는 완전하게 남아 있는 토기 5점이 나왔다. 연해주의 블로치카 유적(그림 4)에서 나온 유물과 매우 흡사하다(김재운 2022b)



[그림 5] 4~5세기 연해주의 말갈 토기(피스카료바 2005 인용, 김재운2022b)

1~5: 한카호 그룹의 토기, 6~10: 아우로프카 성터의 말갈토기

그런데 청호동 3호주거지는凸자형 주거지로 이 지역의 전통적인 집터 모습인데, 파수달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계통의 시루와 폴

체 문화의 토기가 함께 출토된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 전통은 기존의 연구성과 대로 연해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로 부터서 받아들여졌을 수 있으나, 전통이 받아들여진 시점은 기원전 2세기경이다. 그래서 4세기 청호동에서 나온 파수달린 토기(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계통)는 이미 재지 사람이 만든 토기로, 강원지역 사람의 것이다. 청호동 3호 주거지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토기로 볼 수 있는 것은 폴체 문화 즉, 읍루 사람들의 토기이다.

청호동 유적은 4세기인데, 동시기에 중도동에서는 말갈토기가 나온다. 중도동에서 나온 말갈토기 중에 전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토기는 전형적인 말갈토기로, 토기의 입술부위에 눈금이 있는 용기띠를 붙이고, 동체부에는 문양이 없다. 중도동 외에도 말갈토기가 나오는 유적이 우두동 롯데인벤스, 우두동 I유적 등이 있다. 우두동 I유적의 22호 주거지에서는 재지민이 만든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전통이 남아 있는 토기와 말갈 토기편이 함께 출토되었다(김재운 2022b).

유사한 현상이 연해주의 말갈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아우로프카 성 유적(그림 5-6~10)에서 나오는 말갈 토기는 크로우노프카 문화와 폴체 문화의 특징이 남아 있다(피스카료바 2005).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토기 가운데 토기 기벽을 마연하는 특징이 말갈 문화 토기에도 남아 있는 점을 일컫는다. 연해주의 말갈토기에는 선행하는 문화의 특징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 나오는 말갈토기도 이전 문화의 특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점이 있어서 흥미롭다.

아직까지는 중부지역에서 옥저 사람들의 문화 만큼 읍루와 말갈

문화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해를 둘러싼 사람의 이동이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IV. ‘곡옥형 청동기’를 목에 단 시니가이 사람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비파형청동검이다. 청동검이 나오는 시기는 기원전 10세기 가량이지만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4~15세기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비파형청동검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청동유물이 존재했다. 곡옥모양으로 생긴 ‘곡옥형 청동기’라고 불리는데,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일종의 장신구였을 것이다. 경남 진주 남강 유역의 대평 옥방(5지구)유적(그림 6-1)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청동으로 된 곡옥모양의 장신구는 비파형동검이 나오는 중국동북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반대편인 연해주와 청동기문화인 시니가이 문화의 명함과도 같은 유물이(그림 6-2)다. 남강 유역의 평거동 유적에서는 시니가이 문화의 토기와 석기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철정리, 대성리, 천동리, 아우라지 등지에서도 시니가이 문화의 토기, 석기 등이 나온다. 곡옥형 청동 유물대신에 같은 모양의 석제품이 나온다. 시니가이 문화에서도 곡옥형 청동유물은 토제, 석제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상한 점이 아니다.

시니가이 문화는 연해주에서 대략 3400년 전에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중부지역에서는 3200~2900년 전 유적에서 이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강 유역에서는 3100년 전 경에 대평과 평거동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김재운 2018).



[그림 6] 비파형 동검 이전의 청동유물
1: 대평 옥방유적, 2: 시니가이 문화, 3: 정선 아우라지 유적

홍성문화에서는 시니가이 문화와는 약간 다른 특징의 돌대문토기(그림 7-1,3)가 존재한다. 점토띠를 붙이고 각목하는 특징이 있는 토기(김재운 2011)로, 시니가이 문화의 토기가 점토띠를 접거나 부착해서 문양을 생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니가이 문화가 강원도와 남강으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으며, 시니가이 문화와 같이 환동해문화권의 남부지역에서 나타난다. 중부지역의 철정리, 대성리, 천동리, 아우라지 유적은 태백산맥 서쪽, 영서지역의 유적이어서, 연해주 시니가이 문화 사람들은 태백산맥을 따라서 내륙루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김재운 2018).

그렇다고 남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두만강 유역에서 온 사람들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평거동 유적에서는 채색한 뇌문토기도 발견되었는데,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기 전에는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과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비파형동검문화로 들어서는 기원전 10세기 가량 부터는 압록강 유역으로부터 네트워크가 훨씬 강조된다.



[그림 7] 두만강 유역과 한반도의 돌대각목문토기(필자 촬영)

1·3: 흥성유적, 2: 정선아우라지

V. 동해를 개척한 신석기시대 사람들

동해의 오산리 유적(C지구 최하층)에서는 붉은색으로 토기 표면을 곱게 다듬고 문양도구로 찍은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8). 이 토기가 나오는 층의 연대는 6500년 전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이른 토기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고토기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토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신석기토기가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붉은색 토기는 바닥이 편평한 토기이다. 바닥이 편평한 토기는 주로 우리나라 북부지역과 중국동북지역, 연해주에서 확인된다.



[그림 8] 오산리 C지구 최하층 유적(필자 촬영)

이렇게 붉은 토기는 연해주, 중국동북지역에도 동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세보 문화의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다. 수추섬 유적에서는 주거지 안에서 흙으로 만든 사슴모양의 흙

인형도 만들어 놓았고, 사카치 알리안 유적의 화산암 바위에는 배 모양과 동심원문, 전신인물형, 사슴, 얼굴모양 등 암각화도 그려 놓았다. 아무르강의 지류인 우수리강 세레미체보 암각화 유적에서도 동심원문양, 배 모양 등이 발견되었다. 동심원문 암각화는 고령의 양전동, 함안 도항리 유적 등에서도 남겨져 있다. 포항의 대련리 유적에서도 전신인물형 그림(그림 9)이 확인되었다(김재운 2021a).

말리세보 문화 사람들은 동해를 이용해서 한반도 동해안 사람들과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붉은색 토기가 발견된 오산리 유적과 망상동 유적의 물질문화는 아무르강 하류의 사람들이 직접남겨 놓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산리 유적에서는 이음식납시바늘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축부는 돌, 바늘 부분은 골재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연해주, 중국동북지역 등 북쪽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납시바늘이다(김재운 2021a).

6500년 전에는 동해안 오산리 유적, 망상동 유적의 물질문화와 암각화 유적의 문양은 북쪽의 사람들과 교류한 이후에 동해안 신석기 시대 사람이 남겨 놓았을 것이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려진 고래그림(그림 9-26)이 잘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같은 강변으로 몇 km 떨어져 있지 않은 천전리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래그림이 아무르강 하류의 북쪽인 페그티멜(그림 9-22)이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고래와 사슴 뿐만 아니라 버섯처럼 생긴 모자를 쓴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다. 이는 알타이 청동기시대에서 주로 발견되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유적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학계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하지만 암

각화 유적 외에는 별다른 물질문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동해를 둘러싼 교류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매우 광역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다(김재윤 2021a).

6500년 전 이후인 6000년 전에도 동해안에서는 바닥이 편평한 토기가 나온다. 하지만 토기의 문양은 이빨이 많은 도구로 찍거나(오산리식 토기), 가늘거나 굽은 점토띠를 입술부위에 주로 붙여서 만든 토기(용기문 토기)가 나온다. 문암리 유적에서는 옥으로 된 귀걸이와 함께 납작한 접시모양의 토기가 나왔다. 귀걸이는 한쪽이 절단되어 있는 모양이고,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뿐만 아니라 연해주, 중국동북 지역 등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모양과 제작방법, 재질 등은 차이가 있다.

6000년 전 연해주의 루드나야 문화 사람들도 같은 문양 그리는 방법으로 토기를 만들었고, 옥제 귀걸이도 사용했다. ‘초르토프 이 보로타’ 유적은 해안가 동굴 유적이다. 그 안에서는 타다 남은 집의 구조물이 발굴되었다. 집의 구조물 아래에 동굴 가장 안쪽에 인골 5구가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한쪽에 모여서 확인되었다. 집 안에서는 짙은 문양의 토기와 점토띠를 붙인 문양의 토기, 옥제 귀걸이를 포함해서 옥제 장신구, 태운 뼈를 갈아서 만든 장신구 등이 남아 있었다(알렉세프 외 1991). 아마도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동시에 죽었고, 그곳을 무덤으로 사용하기 전에 집을 불태웠을 수 있다(김재윤 2021a). 동굴 안의 집을 무덤으로 사용한 예는 환동해문화권인 춘천 교동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도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토기와 대형의 장방형 석부 등이 나왔고, 인골이 가지런하게 4구가 놓여서 발견되었다(金元龍, 1963).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그림 9] 한동해문화권 및 그 교류지역의 암각화와 토우(김재운 2021a재인용)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6000년 전 동해안과 연해주 사람들은 유사한 문화를 영위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의 신석기 유적은 태백산맥 동쪽의 해안가를 따라서 입지한다. 연해주의 루드나야 문화,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 문화의 유적들도 태평양 연안으로 흘러들어 가는 강에 입지한 유적들이 많다. 한국 강원도의 바닷가는 백두대간이 백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고, 그 북쪽 연장에는 시호테 알린 산맥이 있다. 아무르강 하류부터 한반도 동해안까지는 태평양을 매개로 한 같은 생태환경권이다. 아무르강 하류나 연해주에서 연안을

따라서 배로 이동했을 수 있다. 실제로 오산리 유적에서는 목제 배와 배 모양 토제품도 출토되었다(김재운 2021a).

VI. 맺음말

필자는 6500~6000년 전 신석기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을 문화의 전파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남겨 놓은 것은 태평양을 공유하고 시호테 알린 산맥과 백두대간을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연해주~우리나라 동해안이 하나의 생업권이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아무르강을 떠올리면 매우 추운지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00~6000년 전은 현재보다 2m이상 해수면이 높은 기간으로, 현재보다 따뜻했다(카로츠키 외 1996). 동해를 둘러싼 두 국가의 생업권은 매우 따뜻한 기간에 발생했다(김재운 2021a). 그 이후에도 기온이 따뜻했던 3400~2900년 전에 연해주와 두만강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사람은 내려왔다. 청동기시대는 직접 사람들이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 북한강과 남강 유역에 물질 문화를 남겨 놓기는 했지만, 이들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압록강 유역과 그 인접한 지역의 문화인들이 남겨 놓은 문화도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남겨져 있다. 그 이후에는 두만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옥저 사람들의 문화로 여겨지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는 기원전 2세기경에 중부지역에서 토기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쪽구들이 지어진 집은 기원후 2세기경에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되었다. 남해안 늪도와 방지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3세기 집에서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점은 앞선 시기들과는 달리 기온이 매우 추웠다. 쪽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쪽에 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늪도에 옥저인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아마도 '무역'과 관련되었을 것인데, 당시에 이곳은 국제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부지역에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이후에도 읍루, 말갈 문화도 기원후 3~4세기 유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중부지역의 조사발굴 및 이 지역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연구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해의 염주성인 크라스키노 토성은 8~10세기 유적인 것이 발굴 조사로 확인되었고, 일본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가 단계의 무역과 외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김재운 2017).

〈참고문헌〉

- 金元龍, 「春川校洞 同居遺蹟과 遺物」, 『歷史學報』, 역사학회, 1963, 20호 C. 1-153
- 김재운, 2016, 「한중러 접경지역 철기시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범위에 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93
- 김재운, 2017, 「환동해문화권의 역사적 조망-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고고자료를 통해서」, 『동북아문화연구』, 50호,
- 김재운, 2018, 「청동기시대 초기 경남 평거동 유적과 연해주 시나가이문화의 관련성 검토」, 『嶺南考古學』, 81호
- 김재운, 2021a,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진인진
- 김재운, 2021b, 「2009년 크라스키노 성 출토 동물뼈 분석의 해제」, 『발해 고고학 논문 해제집 러시아 I』,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재운, 2022a,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 『고고학』, 제21권 2호

김재운, 2022b, 「강원지역 철기문화에 나타난 동북한 고고문화의 양상과 그 의미: 단결-크로 우노프카 문화, 폴체 문화, 말갈 문화」, 『강원지역 북방 기초자료집』, 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2011)『(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 1』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2012년도 발굴조사』

윤재운 (2011)「발해의 5경과 교통로의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63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第70號

수보티나 A., 「鐵器時代 韓國과 러시아 沿海州의 土器文化 比較研究 -硬質無文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Subotina, 2008, 「한반도의중도식토기문화와크로우노프카문화의비교, -옥저문화와한반도 의상호교류에대한실증적비교연구」,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E.I.Gelman (정석배 옮김)(2010),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의 결과와 의의 The results and meanings of the excavations of Balhae Sites in Russian」, 『高句麗渤海研究』 38輯

중국어

袁輝 (1993)「泊沟口位置考」, 『北方文物』2期, 1993

러시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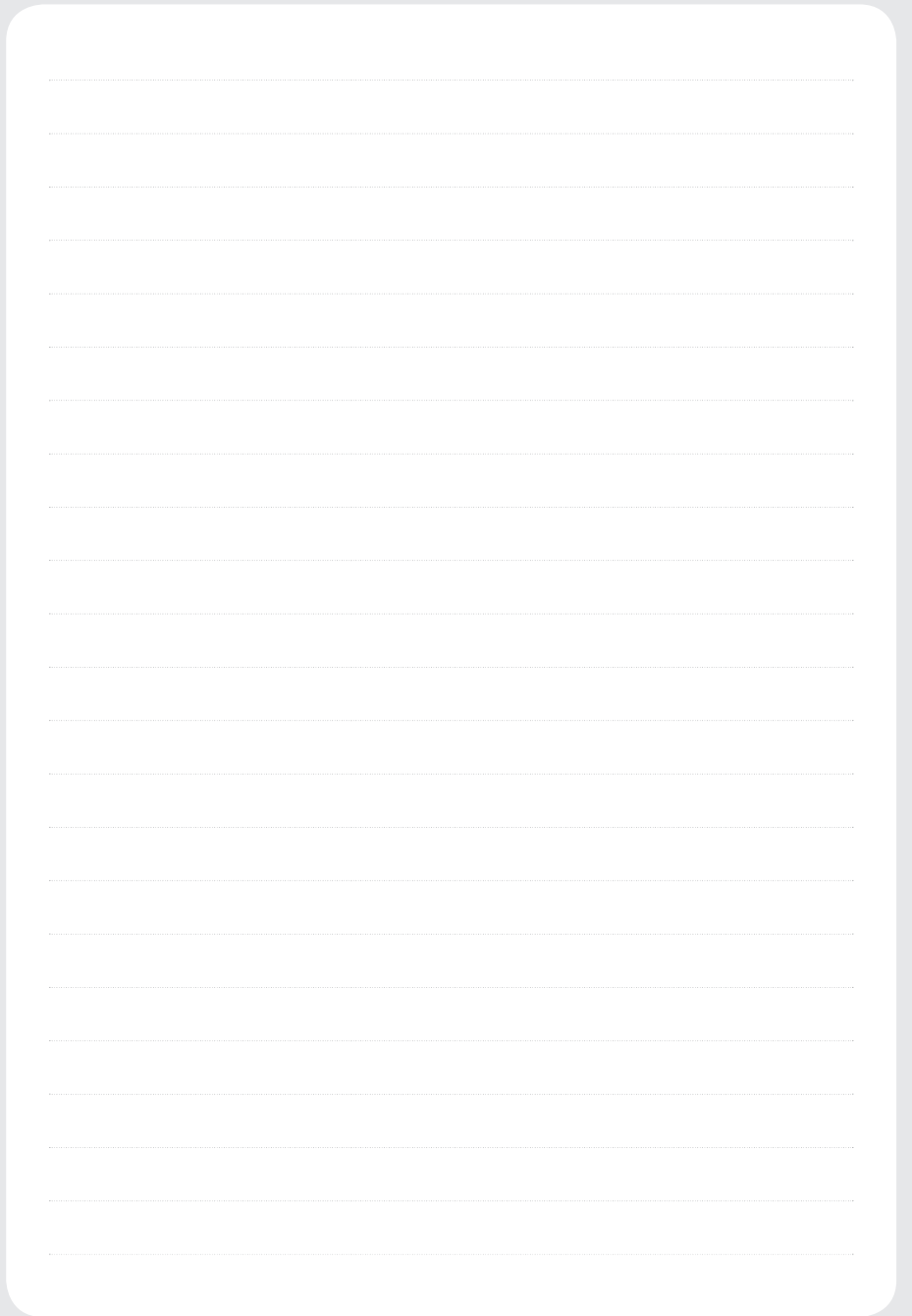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Алексеева Э.В., Андреева Ж.В., Вострепов Ю.Е., Горшкова И.С., Жущиховская И.С., Ключев Н.А., Кононенко Н.А., Кузьмин Я.В., Худик В.Д. *Неолит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ревнее поселение в пещере Чертовы Ворота*// М. : Наука, 1991, 232С.(알렉세프 외 1991, 극동 남부의 신석기시대: 고대 동굴 유적 초르토프이 보로타)

Корогий А.М., Гребенникова Т.А., Пушкарь В.С., Разжигаева Н.Г., Волкова В.Г., Ганзей Л.А., Мохова Л.М., Базарва В.Б., Макарова Т.Р., 1996, *Климатически е смени на територии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позднем кайназое (миоцен-плейстоцен)*, Владивосток (카로트키이, 그레메니코바, 푸시카리 등 1996, 신생대 홀로세의 극동 남부 기후변화)

Раков В.А., Гельман Е.И. (2002) *Малакофауна бохайскоо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라코프, 겔만 2002, 고르바트카 발해성 출토, 연체동물)

Я.Е. Пискарёва 2005, Глава V. Локальные группы мохэ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피스카료바 2005, 「연해주 말갈 유적의 지역그룹」)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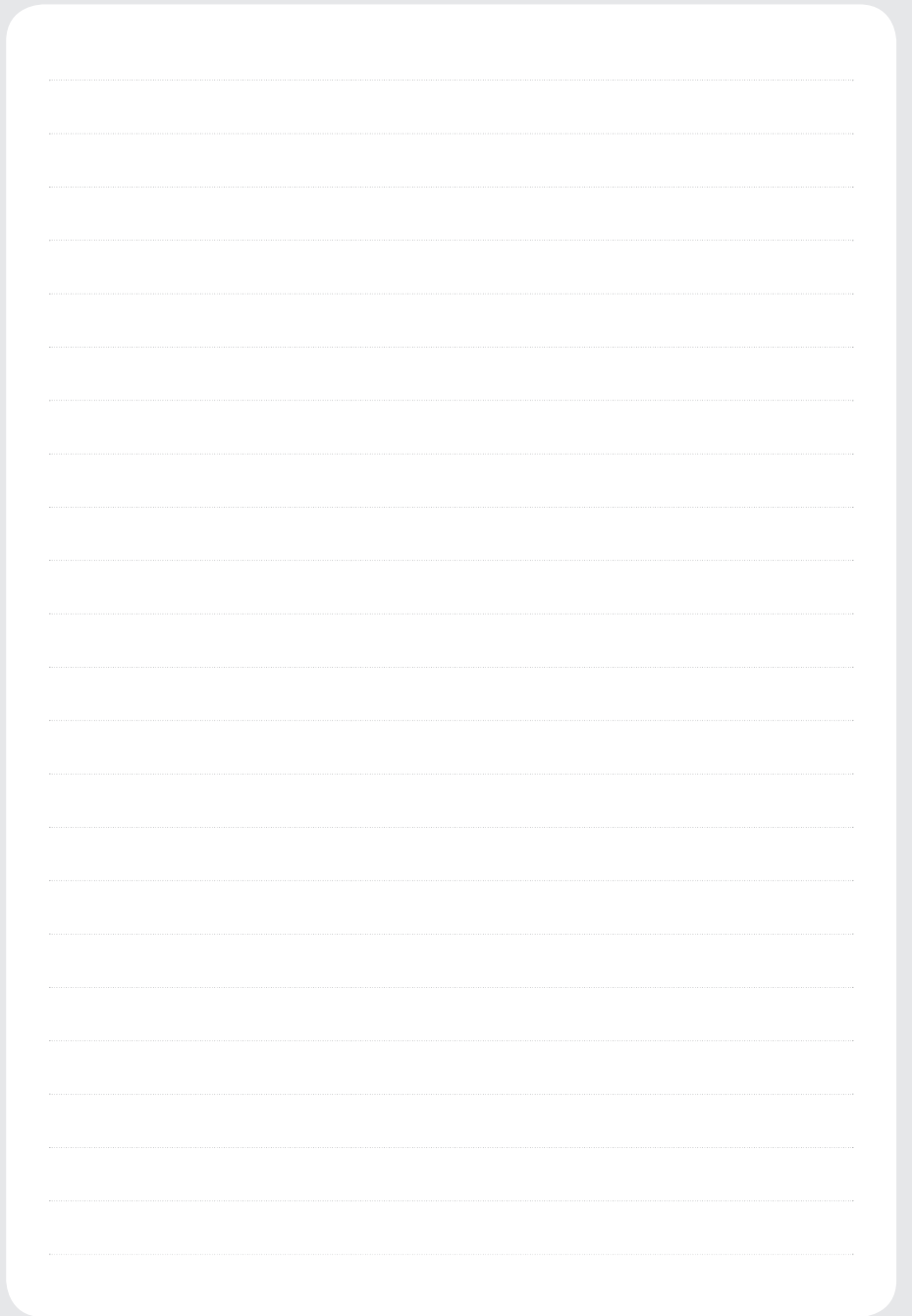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rectangle is positioned on a dark grey background.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Part_6

일본열도에 정착한 가야인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조성원

전 부경대학교

들어가는 글

일본열도의 역사에 있어서 외래문화의 영향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선사시대 이래 일본열도로 건너와 새로운 문화를 전달한 사람들의 계통과 문화적 특징이 당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열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연해주, 남쪽으로는 대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반도로부터 받은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을 특별히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그만큼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와 사람들이 일본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강좌는 ‘바다를 건너 가야인’이라는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한 것으로, 일본열도로 건너간 ‘도래인’ 중에서도 가야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야인의 활동이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전시기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물질문화의 전파와 유입이라는 측면은 항상 인간의 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교류라는 측면으로 그 의미를 넓혀서 가야계 도래인의 활동모습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가야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의 영향이 확인되는 것은 선사시대부터이지만, 구석기시대에는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적다. 그러나 빙하기에 속했던 당시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80~100m가량 낮았기 때문에 남해안과 일본열도 사이가 좁은 협곡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 한반도의 남해안지역 중에서도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본열도에서 생산된 조몽토기나 흑요석과 같은 것이 출토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토기나 결합식 낚시바늘, 조개팔찌 등과 같은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물품이 확인된다. 이처럼 신석기시대에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한반도의 동남해안과 일본 큐슈지역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으며, 특정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하기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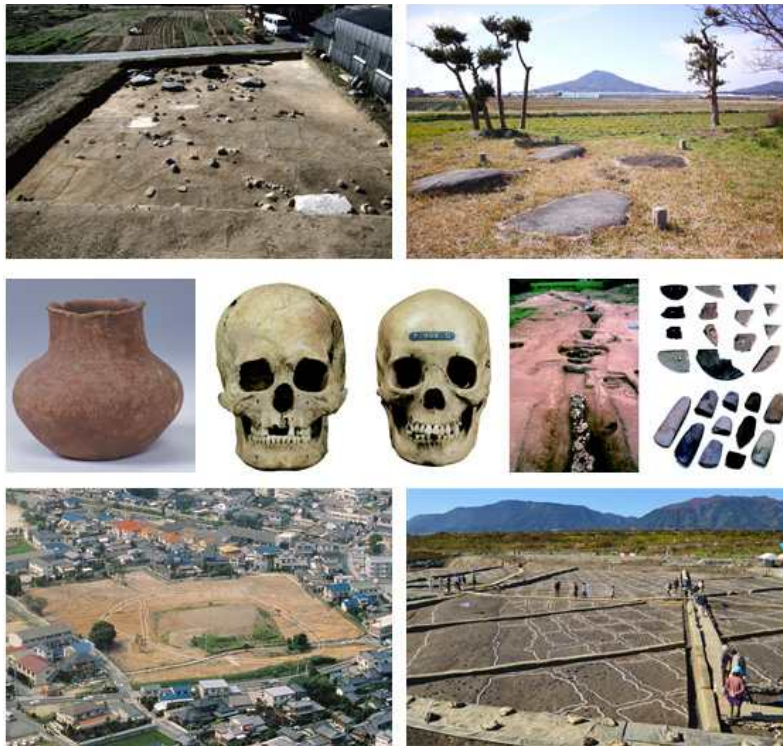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문화적 흐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이다. 청동기시대 동안 한반도에는 논농사가 전 지역으로 확산·보급되면서 급격하게 사회발달이 진행된다. 청동기시대에는 무문토기, 논과 밭, 반달돌칼과 같은 다양한 농기구 등 신석기시대 볼 수 없었던 각종 도구와 함께 계층의 발생을 보여주는 고인돌, 전쟁이나 각종 외부적 압력을 막기 위한 도랑을 설치한 마을(환호취락)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바다를 건너 큐슈지역으로 전파되고, 이후 빠른 속도로 일본열도로 확산되어 농경문화를 기본으

로 하는 야요이시대(弥生時代)를 열게 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건너온 새로운 문화는 단순히 물질의 전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인들이 직접 건너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는 지식묘와 환호취락과 같은 벼농사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욱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시기인 조몽시대 사람과 다른 형태의 두개골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부터 서일본지역 각지에서 확인되는데, 이들이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가지고 일본열도로 들어온 가야 이전의 본격적인 도래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가져온 문화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계층사회로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정치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청동기시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당시까지 일본열도에 있었던 조몽시대 사람들을 축출하거나 우위에서 점령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는 신초유적의 고인들에서 보듯이 무덤은 한반도계이지만 묻힌 사람은 조몽계통 인물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바다를 건너온 청동기시대 도래인들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일본열도의 토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야요이시대를 이끌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열도에 정착한 가야인



[그림 1]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한반도계 도래인의 흔적과 영향

청동기시대와 야요이시대를 거치면서 양 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정치권력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형성된다. 이 집단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문물을 입수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고, 이는 동북아시아라는 넓은 범위에 걸친 국제교역의 성립으로 이어진다. 즉 한반도 남부와 일본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교류가 한반도 남부를 매개로 해서 일본열도와 한반도 북부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대되

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기원전 108년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설치된 한사군과 중국의 선진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의 여러 집단에 의해서 점점 활발해져 갔다. 이후 모습(기원후 3세기)이긴 하지만 이 같은 국제교역의 양상을 묘사한 중국 역사서 『삼국지』를 통해, 교역의 배경에 가야의 전신인 변한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철은 당시 최고 기술로 생산된 최고급 원료이며, 이 중에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변한산 철을 구매하기 위해 낙랑·대방·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모여 들었던 것이다. 특히 막 철기문화가 전파되었던 일본열도에 있어서 변한의 철과 새로운 중국문화의 입수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 같은 국제교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천 늑도 유적과 일본 나가사키현 이키섬의 하루노쓰시 유적(長崎県 壱岐原ノ辻遺蹟)이다. 양 유적은 각각 남해안과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는 물론 당시 사용했던 중국 동전과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추 등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 국제교역항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붓이나 벼루 등과 같은 문자기록을 위한 도구나 낙랑으로부터 유입된 청동기와 철기문화 등 중국 한나라의 선진문물도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 일본열도 큐슈지역에 이르기까지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원 전후를 한 시점부터 철을 매개로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형성과 함께 선진문물의 확산됨에 따라 한반도와 일본열도 각지의 정치체는 더욱 성숙해졌다.



[그림 2] 일본 나가사키현 하루노쓰지 유적 출토 유물(1:한반도계 토기, 2·3. 저울용 추, 4. 중국동전)

그런데 1세기를 전후해서 국제교역을 대표하던 늑도 유적과 하루노쓰지 유적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일본열도 내 교역 중심지가 후쿠오카 하카다만(博多灣) 일대로 이동한다. 특히 3세기대가 되면 후쿠오카현의 니시진마찌 유적(福岡県 西新町遺蹟)이라는 새로운 집락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3세기를 전후한 짧은 시기 동안 조성된 대규모 생활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한반도계 유물은 대체로 전라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한지역의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변한의 유물도 꽤 출토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열도 각지에서 생산된 토기들도 니시진마찌로 유입되고 있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전까지 일본열도에 없었던 부뚜막을 가진 주거지와 함께 시루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 남부로부터의 도래인이 니시진마찌 유적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도래인들의 역할 역시 인근 하카다 유적(博多遺蹟)에서 보이는 단야생산 관련 유물로 보아, 역시 철기생산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변한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일본열도 각지로 철제품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후쿠오카 니시진마쓰 출토 한반도계 유물과 이궁이가 있는 주거지(22호 수혈주거지)

2. 정치적 교섭의 시작

- 3세기 후반~4세기대 가야와 왜의 교류

3세기 후반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 함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시작된다. 이 때 일본열도는 기존까지 한반도를 통해 입수한 선진문물을 통해 성장했던 큐슈지역을 대신해서, 긴키(近畿)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체(야마토정권, 大和政權)가 일본열도 각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왜(倭)라고 하는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는 소위 고훈시대(古墳時代)로 들어선다. 야마토 정권은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재래적 요소와 함께, 한반도와 중국을 통해서 입수된 선진문물을 독점하여 일본열도를 장악해 간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긴키지역이 대 한반도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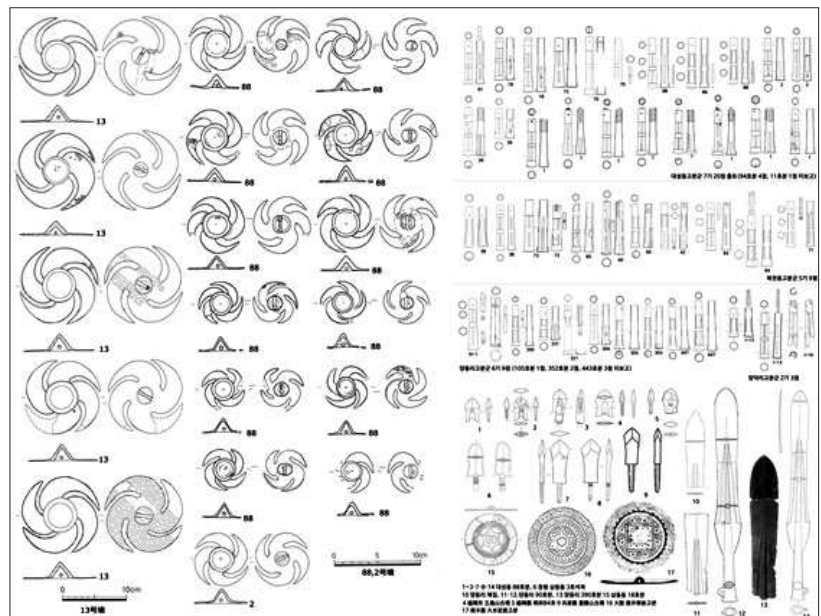
잡고, 한반도의 도래인들이 긴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면 도래인들은 마한, 백제지역 등 남해안과 서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야의 여러 나라에서는 4~6세기 동안 어느 지역보다 많은 도래인들이 일본열도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 지역간의 교류와 도래인의 활동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주체 세력에 따라서 크게 4세기대와 5~6세기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4세기대는 김해-부산지역을 근거로 성장한 금관가야가 왜와의 교류를 독점하고 있었으며, 5~6세기대에는 금관가야의 몰락을 기점으로 가야 여러 나라와의 왜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3세기 후반부터 김해-부산지역에 근거지를 둔 금관가야가 성장하면서 한반도와 왜와의 교섭은 낙동강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왜의 중요 교섭 대상 중 하나였던 백제나 중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금관가야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겠지만, 변한 때부터 이어지는 금관가야의 우수한 철 문화와 그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선진문화를 흡수하기 위한 왜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4세기대 금관가야는 동북아시아 교역의 교차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것이 왜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4세기대 금관가야와 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물적증거는 통형동기¹⁾나 파형동기, 축형 석제품, 동축, 비취제 장신구, 하지키 등이 대표적

1) 통형동기는 일본열도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금관가야 출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관가야에서 생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어느 쪽이든 금관가야와 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품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이다. 이 중에서 하지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일본열도 내에서도 주로 긴키지역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금관가야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양동리 고분군, 그리고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과 같은 최고 수장층 묘역에서만 출토된다. 또한 이러한 유물은 4세기 동안 금관가야 이외 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양 지역의 수장층이 서로 독점적으로 교역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 중 일부-파형동기, 축형 석제품, 동촉- 등과 같은 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금관가야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내에서도 교역을 주도했던 곳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4세기대 금관가야 출토 왜계유물

이와는 별도로 하지키라는 당시 일본열도의 일상생활용 토기도 가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하지키계는 가야의 연질토기와 유사하며 4세기대 일본열도의 토기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왜인의 직접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수장 간의 교류 이외에도 일상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지키 역시 4세기 동안 금관가야에서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왜와의 교류를 금관가야가 독점하고 있었던 점에는 변함이 없다. 어쨌든 하지키는 금관가야에서도 외곽에 있는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기 때문에, 금관가야의 외곽에서 가야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 지역의 교류에 기여했던 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에서는 이 시기부터 농공구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철제도구들이 수장층 무덤에 부장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금관가야의 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긴키지역의 수장들은 큐슈지역의 수장들을 압도하고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지역과의 교류를 독점하고, 철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철 이외의 각종 선진문물 역시 금관가야와의 교류에서 확보하여, 일본열도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긴키의 수장들은 철과 선진문물의 독점, 분배하면서 각 지역의 수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정치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열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시기의 가야계 유물이 가야계 도래인과 직접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즉 교류에 의해 가야인이 일본열도 특히, 긴키지역으로 향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거주를 했던 흔적이나 문화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앞선 시기의 니시진마치 유

적에서처럼 가야 혹은 한반도 남부의 문화를 담고 있는 주거지나 생활문화의 흔적이 긴키지역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유적에서 당시 가야지역의 토기인 도질토기와 연질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그 수가 적고 단속인 좁은 도래에 의한 장기거주가 거의 없었던 것을 반영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금관가야에서 야마토 정권으로 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일본열도 각 지역의 생활유적에서 토기를 비롯한 각종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이 확인되므로 향후 조사 성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²⁾.

3. 가야계 도래인이 가져온 새로운 물결 -5세기 이후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

4세기대 가야와 왜의 교류는 양 집단을 대표하는 수장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 시기와는 달리 도래인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즉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4세기 후반 고구려의 성장과 함께 일어난 한반도 전역에 걸친 정치적 변화는 가야와 왜의 교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 극적인 상황이 바로 광개토태왕비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군의 경자년(庚子年, 400) 남정이다.

2) 하지만,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큐슈 일대에서는 도래인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가야지역에서 보이는 하지키와 같이 일상적인 교류를 위해 넘어온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399년 신라는 왜의 침입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광개토태왕은 이듬해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해 신라를 구원하게 된다. 이에 왜는 친분이 있던 금관가야 쪽으로 퇴각로를 잡았지만, 고구려군의 추격으로 금관가야까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질자료가 바로 금관가야 최고 계층의 무덤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쇄퇴이다. 이에 따라 4세기대까지 동북아시아 교역의 거점이었던 금관가야가 급격하게 몰락하고 왜의 주요 교류 대상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금관가야의 몰락과 함께 이전시기에 보이지 않던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이 긴키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즉 400년 고구려의 남정을 전후해 한반도 동남부의 혼란스러운 정세와 금관가야의 몰락으로 가야인의 도래가 본격화된 것이다.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자료는 스에키(須惠器)이다. 스에키는 3세기 후반 가야에서 등장한 도질토기와 흡사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5세기를 전후해서 처음 생산된다. 도질토기와 스에키 생산에는 1,200℃를 전후한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4세기대 금관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왜에서는 가야에서 생산된 도질토기 일부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400년을 기점으로 오사카 스에무라 유적(陶畠遺蹟)에서 스에키를 생산했던 가마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스에키 생산기술이 일본열도 각지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처음 생산된 스에키는 당시 일본열도에서 사용하던 하지키와 유사한 것도 있지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의 가야지역 도질

토기와 흡사한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에키 생산에는 가야의 도래인 중 도질토기 생산을 담당하던 공인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선진적인 가야토기 생산기술을 하지키 공인들에게 전수하면서, 함께 스에키라는 새로운 토기문화를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이후 스에키는 점차 일본화하면서 열도 각지로 확산³⁾되어 고분시대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그림 5] 5세기 전반의 초기스에키와 생산유적

스에키와 함께 가야계 도래인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종 철제 무기류의 대량생산과 소유를 들 수 있다. 4세기대 일본열도에서는 몇몇의 철제 갑옷과 투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철

3) 과거에는 스에무라유적에서 생산된 스에키와 그 기술이 일본열도 각지로 확산된다는 일원론이 우세하였으나, 최근 일본 각지에서 초기 스에키를 생산한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다원론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스에키 생산과정에 가야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크게 변함이 없다.

기 생산을 보여주는 자료는 적다. 그나마 확인되는 자료는 대체로 간단한 철기류를 생산할 수 있는 단야공정이 한정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스에키의 등장과 함께 철기생산관련 유물이 일본열도에서 출현하고, 각종 무기와 갑옷, 투구 등을 다량으로 부장하는 풍습이 확인된다.



[그림 6] 5세기대 무기 다량 매장과 새로운 철제 무기, 마구류의 등장

특히 갑옷과 투구는 옆으로 긴 띠형태의 철판을 중심으로 작은 철판을 연결해서 만드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방식의 통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철판을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죽끈에서 철못으로 바뀌어가는 양상 등을 고려하면 이상과 같은 철생산 기술의 확산과 기술적 발전이 도래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가야의 주력 무기 중 하나였던 철모의 도입과 철제 마구류의 등장, 각종 무기류의 대량생산 등도 이 때부터 등장한 새로운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일본열도의 사회적 분위기-수장의 군사적 중요성이나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한 사회통합 등-를 반영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우수한 철생산 기술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즉 4세기대까지 한정된 철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던 왜는 한반도 동남부 특히 가야지역의 혼란으로 일본열도로 건너온 가야계 도래인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들의 우수한 철 기술을 이 시기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철기생산과 관련된 공방유적이거나 주변에서 한반도 특히 가야계 도래인의 흔적이 자주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비로소 일본열도에 말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야에서는 말의 존재 여부를 떠나 원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이용했던 흔적들이 확인되며, 4세기대부터는 말을 구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철제로 제작, 확산되기 시작한다. 반면 일본열도에서는 5세기 이전까지 말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확인된 바 없다. 즉 5세기대 가야계 도래인이 유입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말과 목장에 관한 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목장으로 파악되고 있는 시토미야키타 유적(藪屋北遺蹟)에서는 말 한 마리를 통째로 묻은 구덩이(마갱)를 비롯해서 안장, 등자, 재갈과 같은 다양한 마구류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그림 7] 시토미야키타 유적의 마갱과 도래인 관련 유물

주목되는 것은 시토미야키타 유적에서는 도래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 생활용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나아가 시토미야키타 유적이 속한 시조나와테시(四条畷市) 일대에서도 말의 흔적과 함께 도래인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흔적을 가야계 도래인의 것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김해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전이 달린 술이나 이동식 부뚜막이 많고, 앞서 살펴본 스에키와 철기류의 양상 등도 함께 고려하면 가야계 도래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이 분명하다. 이들은 단순히 말이라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생육하고 활용하는 기술까지 왜에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5세기 전반의 혼란 속에 왜로 건너온 가야인들은 일본열도 사회의 변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실제 연구에서도 4세기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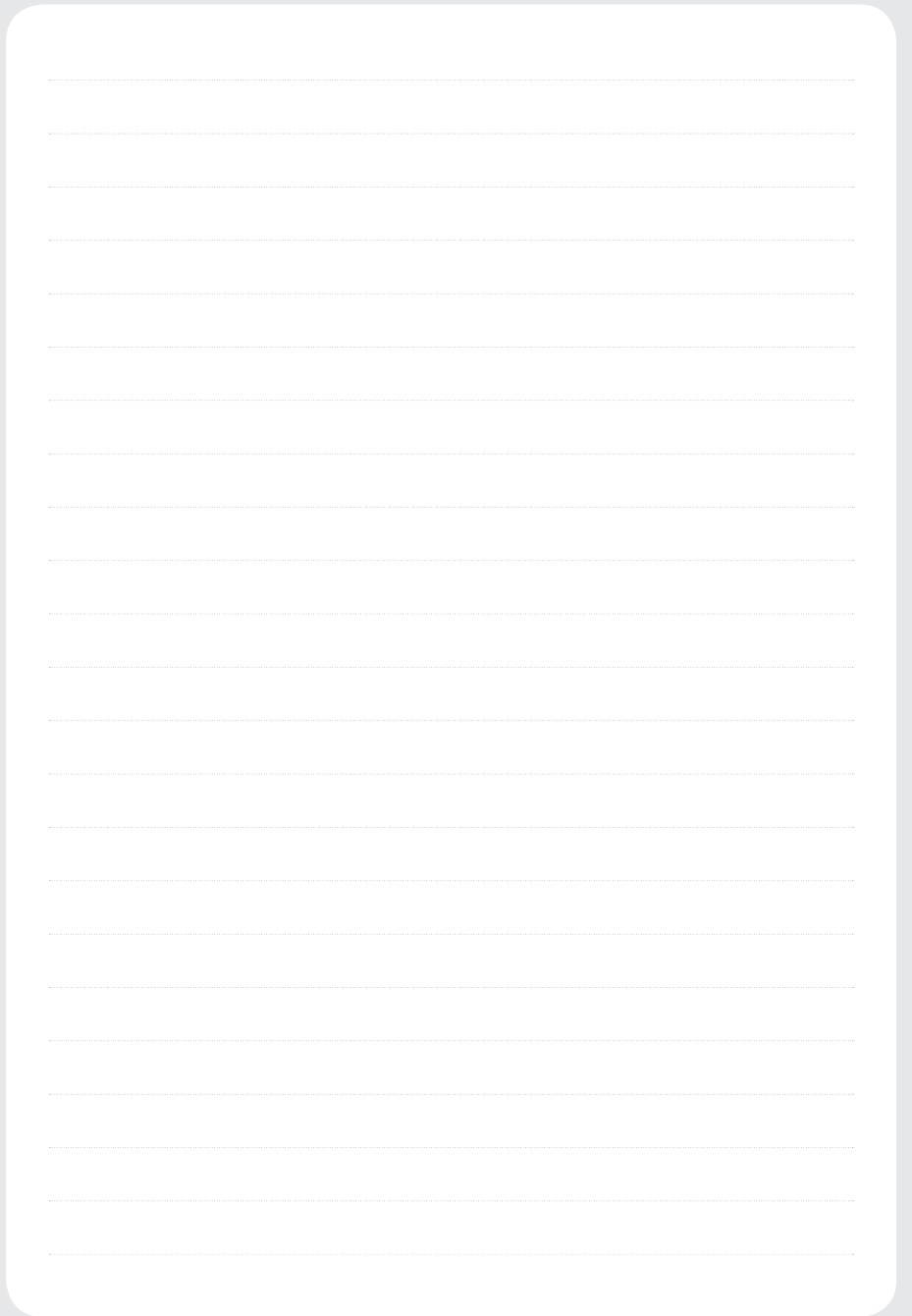
세기를 같은 고분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5세기를 하나의 획기로 보고 4세기를 전기, 5세기를 중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도래인들이 일본열도에 가져온 바람은 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왜의 수장층이 모인 긴키지역은 이러한 상황을 틈다 우수한 가야계 도래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수한 기술을 독점하여 이를 지역 수장으로 재분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중후반이 되면 금관가야를 대신해 대가야·아라가야·소가야와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하게 된다.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교역과 도래라고 한다면 이후는 가야 각지에서 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성장하는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의 교류 역시 4세기대 금관가야와 왜와의 관계처럼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 지역에 수장급 무덤에서 나오는 교류 관련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기존에 건너갔던 가야계 도래인이 왜인 사회에 흡수되면서 그 원형을 잃어 가는 것에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왜인 사회에서는 소량이기는 하지만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가야계 자료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5세기 전반에 비해서는 적다하더라도 가야에서의 도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맺음말

한반도의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 이래 계속되었으며, 이들은 일본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가야계 도래인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중국 문화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기술을 이용해 일본 고대국가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야계 도래인들이 익숙치 않은 왜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그들의 기술을 펼치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즉, 고향을 떠나온 가야계 도래인들은 그들만의 사회를 구성하여 배타적인 삶을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일본열도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서 새로운 사회로 적응해 나갔을 것이다.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rectangl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The rectangle is positioned on a dark grey background.

제25기 가야학아카데미 |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Tel_ 055) 320-6800 Fax_ 055) 328-2468

발행일 : 2023년 5월

편집디자인 : 리드릭
및 인쇄처 07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Tel_ 02) 3667-4945 Fax_ 02) 3667-4942

